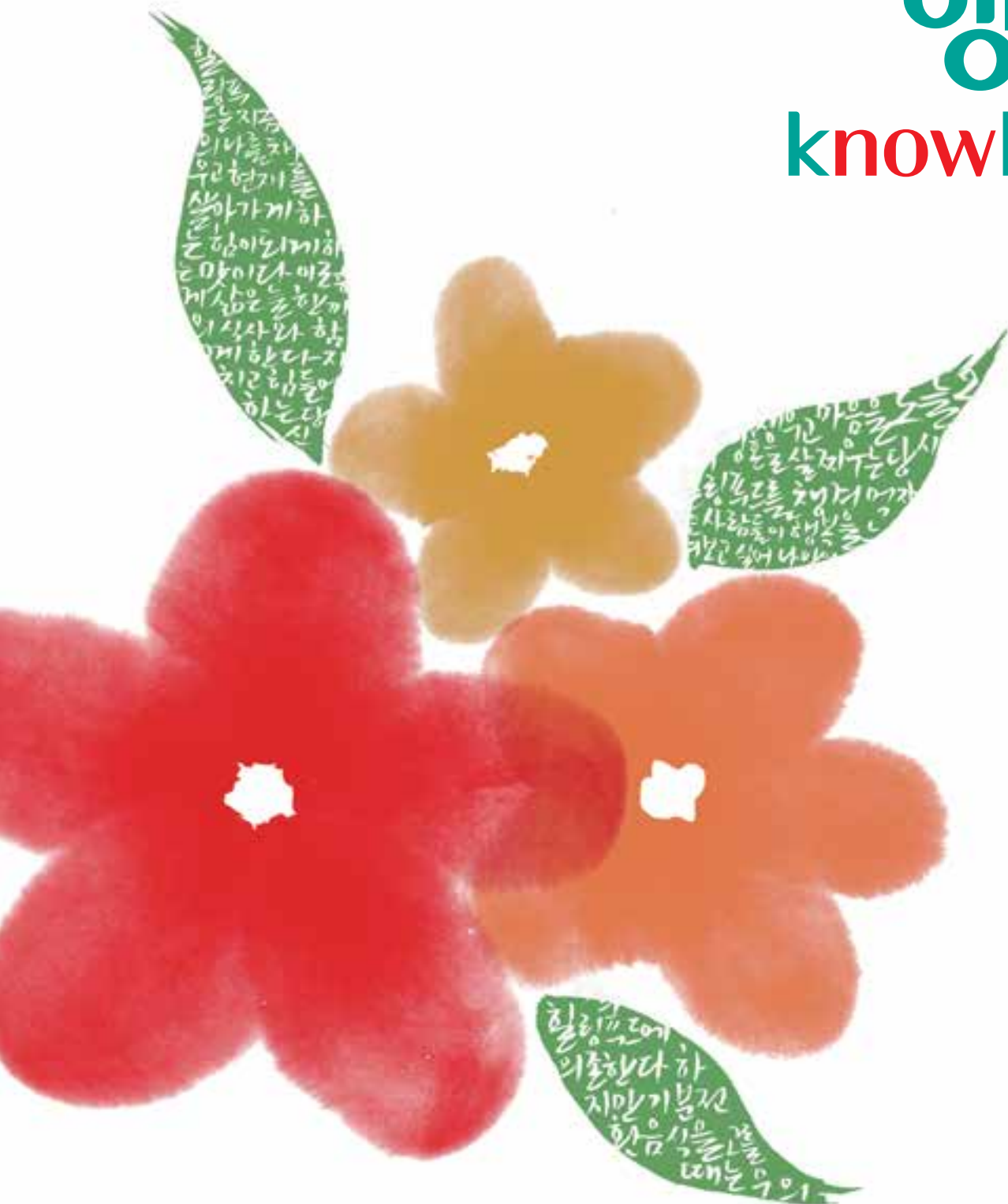




대한민국 행복금융
하나금융그룹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04

APRIL 2015
vol.04

MONTHLY MAGAZINE



대한민국 행복금융
하나금융그룹

광복70
주년

광복 70주년 금융으로 외치는 대한민국만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계좌당 815원을 출연하여
독립유공자 유가족 및 후손, 해외독립유적지 보존사업을 후원합니다

대한민국만세 예금·적금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 뿐이다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 중에서
이상현 **한글** 쓴다



대한민국만세 예금·적금만의 혜택-

- 온라인 banking(인터넷/스마트폰)에서 나라사랑 메시지 작성 시 연 0.2%의 우대금리 제공
- 가입 계좌당 815원을 출연하여 광복 기념 공익사업에 후원
국내 독립유공자 유족 후원 /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 해외 독립유적지 보존사업 지원 ※ 2015.8.15까지 가입 계좌로 1회에 한하여 기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하나은행 중법감사인 심의필 제 2015-1282호(2015.03.16)/CC브랜즈-150316-50

행복한 금융을 열어갑니다
하나은행

표지 작가소개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해를 품은 달〉〈타짜〉〈국순당 우국생, 백세주〉〈교촌치킨BI〉

현.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문화예술학과 초빙교수

사. 한국 미술 협회 이사, 한국 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당신의 힐링푸드는 무엇 입니까?



What are
the foods that
help you heal?

삶의 허기를 채우는 영혼의 레시피, 힐링푸드

힐링푸드에 대한 우리의 자세

마음이 공허할 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 의기소침 할 때, 외로울 때, 화날 때, 우린 때때로 맛있는 음식을 상상한다. 맛갈스런 음식을 앞에 두고 불이 부풀어 오르게 먹는 상상을 하면 어느새 마음은 벅찬 기쁨으로 차오른다.

엄마의 된장찌개, 여행지에서 맛본 낯선 요리, 연인과 함께 나눠 먹던 디저트, 어릴 적 처음 먹어봤던 짜장면까지... 이렇게 힐링푸드는 지금의 나를 채우고,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맛이다. 이렇게 삶은 늘 한 끼의 식사와 함께 한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당신, 오늘도 마음을 채우고 영혼을 살찌우는 당신의 힐링푸드를 챙겨먹자.

영화 <카모메 식당>의 주인공 사치에는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 아주 좋은 재료들을 사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놓고 성대한 파티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한다.

이처럼 '먹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위한 소중한 의식이다.

음식은 단지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속에 이야기와 추억, 사랑을 담고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 기운이 없을 때 엄마가 차려주는 밥 한 공기를 떠올리기도 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연인이 건넨 달콤한 초콜릿 상자를 기억에서 꺼내 상쳐 난 마음을 다독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당신에겐 어떤 음식이 당신 삶의 허기를 채우고 있는가.

뉴스위크 최신히는 행복을 위한 아이디어로 '먹는 즐거움'에 대해 소개하면서 어떻게 음식을 먹으면 행복을 위해 바람직한지 흥미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라고 얘기한다. '변화가 인생을 즐겁게 해준다'는 격언을 언급하며 새로운 음식을 탐구하는 것은 재미있고 매력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모험심을 갖고 일주일에 한번은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 보자. 맛있는 음식을 향한 새로운 시도는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둘째, 건강식을 먹어야 한다. 건강식을 먹으면 심장병 위험이 줄어들고, 활력이 생기며, 질병을 막을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외식, 패스트푸드점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편리함은 줄지 모르지만, 거기서 섭취하는 열량이 결국 한 시간의 임금보다 더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가능하다면 건강한 집밥에 애정을 쏟자.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달콤한 푸드가 주는 행복

세계적인 호텔체인업체 더블트리 바이 힐튼社(DoubleTree by Hilton)는 영국 노팅엄 트렌드대 심리학과 글렌 윌리엄스 박사팀에 의뢰해 총 2,0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20가지 버킷리스트’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조사 결과 달콤한 음식이 20가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영국 사람들은 초콜릿을 먹을 때, 한 잔의 차(茶)에 곁들여 쿠키를 먹을 때, 한조각의 케이크를 먹을 때, 누군가 내게 마실 거리를 건네줄 때 행복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조사를 의뢰한 더블트리 바이 힐튼社 존 그린리프 사장은 “기대치 못한 작은 것이 엄청난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인생”이라며 “스트레스로 가득한 여행으로 하루를 보낸 후 호텔에 들어왔을 때 다른 손님들과 함께 초콜릿칩 쿠키를 나눠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쿠키야말로 인정과 환대의 심볼이고, 쿠키가 지친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든다”고 쿠키 예찬론을 펼치기도 했다.

행복은 어쩌면 대단한 것이 아닌 매순간 또는 하루하루를 미소 짓게 만드는 소소하고 작은 즐거움에서 시작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만의 힐링푸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삶 자체를 의미있게 만든다.

음식으로 내 몸을 치유한다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의 효능을 알아두는 것도 진정한 힐링푸드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예컨대 평소 두통으로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뻐뻐한 사람은 무를 많이 섭취하면 효과적이다. 특히 무는 찬 성질의 음식으로 몸을 차게 하고 머리의 열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양배추, 감자와 브로콜리를 많이 먹는 게 좋다.

감자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면역력 강화, 불면증에는 호박이 좋다. 호박은 숙면을 도와주는 대표음식으로 비타민C가 풍부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안정시켜 준다. 또한 비타민B1이 많아 몸의 피로를 없애주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된다.

최근 커피를 통해 그야말로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커피와 건강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강북삼성병원 연구팀 조사결과 하루 커피 3~5잔을 마시면 심장마비와 동맥경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소비와 관상동맥질환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다. 물론 커피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를 커피를 즐기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오래 행복해지는 건강한 힐링푸드를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끼고 싶어 나만의 힐링푸드에 의존한다.

하지만 기본 전환 음식을 고를 때는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사회심리학과 인성과학’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섭취와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의 공동저자인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의 샌포드 드보 교수는 “패스트푸드가 우리에게 시간을 절약시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해방시킨다”면서 “그러나 패스트푸드는 우리의 조급함을 자극하기 때문에 삶을 즐기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푸드는 그 자체로 건강에 좋지 않고, 또 호르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금씩 식사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태도 자체도 행복감 증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어쩌다 한 두번의 패스트푸드 식사야 문제가 없겠지만, 수시로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은 바로 독약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일시적 기분 전환이 아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힐링푸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호주 맥버른대 연구진은 2020년에 이르면 세계적으로 우울증이 심장 질환 다음으로 일반적인 장애로 자리 잡을 거라는 전망을 토대로 식단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밝혀냈다.

연구결과 기름에 튀긴 음식, 도정된 곡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 맥주 등 건강하지 못한 서구식 식단을 섭취하는 여성은 우울증이 생길 확률이 50%나 높았다. 반면 채소, 과일, 소고기, 양고기, 생선, 잡곡 등 건강한 자연식을 섭취하는 여성일수록 우울증과 불안 장애확률이 30%나 감소했다.

바로 최근 우리가 건강식, 자연식에 주목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요소 때문이다. 보다 오래 행복해 질 수 있는 건강한 힐링푸드는 당신을 행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5년 04월호 vol.04
MONTHLY MAGAZINE, APRIL 2015



10 행복을 주는 사람 | 키다리아저씨빵집 김생수

어느 동네에나 있음직한 모퉁이 작은 빵집. 평범해 보이는 빵집이지만, 간판처럼 '키다리아저씨'를 달아가는 특별한 이웃이 빵을 굽고 있다. 그리고 키다리아저씨를 달아가는 동네 주민들이 있다. 키가 커서 키다리아저씨가 아닌, 마음이 커서 키다리아저씨라고 말하는 김생수 씨. 20년을 하루같이 행복하게 빵을 굽는다는 그를 만나봤다.



18 지식 플라자 | 퇴직금과 연금 어떤 것이 나에게 득(得)이 될까?

100세 시대를 맞아해 퇴직 후 노후 설계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퇴직 이후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명한 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 퇴직금 수령 방법에 따라 서로 세부담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노후를 보다 풍요롭게 해줄 질세 방법을 알아보자.



28 Anti aging | 한방차에서 행복을 우려내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바쁜 일상 중 한 잔, 누군가를 만난 자리에서도 한 잔, 언제 어디서든지 마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차(茶)가 있다. 바로 한방차. 지친 몸을 다독거리고, 바쁜 생활 속 시든 마음을 다스려줄 4가지 한방차를 소개한다.



42 부동산이슈 | 부동산 훈풍을 타고, 쏟아지는 분양물량

지난해에 이어 분양시장 열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신규 아파트 분양규모는 40만 호에 달해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분양주택의 입주시점이 일시에 도래하면서 앞으로 2~3년 이후 주택시장에 가해질 공급충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OPENING



- 02 행복을 위한 질문
당신의 힐링푸드는 무엇입니까?

INTERVIEW



- 08 행복을 주는 사람
마음이 큰~ 행복한 빵집 '키다리아저씨'

INFO GRAPHY



- 12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퇴직연금 100조 시대 진입

행복미래설계



- 14 H씨의 행복설계
수익 추구형 금융자산 운용과 은퇴시기 늦춰 행.복.한 노후 설계
- 18 지식 플라자
퇴직금과 연금 어떤 것이 나에게 득(得)이 될까?
생명보험 재테크
은퇴 후 소득공백기 대비, 연금형 예금
- 26 Do! Dream
현재를 즐겨라, 이색 동호회
- 28 Anti aging
한방차에서 행복을 우려내다
- 30 Alone, together
두 바퀴의 행복, 자전거

연금이슈포커스



- 32 연금 포커스
노후설계를 위한 보험상품 현황과 시사점

경제 TREND



- 36 경제이슈
대차대조표 불황과 한국 경제
- 39 시장이슈
1%대의 기준금리, 약(藥)인가 독(毒)인가
- 42 부동산이슈
부동산 훈풍을 타고, 쏟아지는 분양물량

GLOBAL



- 46 지구인 이야기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인 중국

FUTURE



- 48 은퇴, 버킷리스트
뛰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용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월간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5년 4월호 vol.04 (통권 4호)

발행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록번호 영등포, 라00424 등록일 2015.01.27 제호 행복Knowhow 간행 일간 발행인 배현기 편집인 김대익 발행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12층 발행일 2015년 3월 9일 전화 02-2002-2200 팩스 02-2002-2610 홈페이지 www.hanaif.re.kr 편집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정승희 수석연구원, 박지홍 연구원, 하니은행 | 김한성 팀장, 최호재 팀장, 외환은행 | 김홍균 수석전문역, 조선영 차장, 하나대투증권 | 이정철 실장, 하나생명 | 최춘석 차장 제작 및 기획 커뮤니케이션즈 전화 02-3452-3789 홈페이지 www.teum.co.kr

키다리아저씨빵집 김생수 씨

마음이 큰~ 행복한 빵집 '키다리아저씨'

어느 동네에나 있음직한 모퉁이 작은 빵집. 평범해 보이는 빵집이지만,
빵집 이름처럼 '키다리아저씨'를 닮아가는 특별한 이웃이 빵을 굽고 있다.
그리고 키다리아저씨를 닮아가는 동네 주민들이 있다. 키가 커서
키다리아저씨가 아닌, 마음이 커서 키다리아저씨라고 말하는 김생수 씨.
20년을 하루같이 행복하게 빵을 굽는다는 그를 만나봤다.

“네, 키다리아저씨입니다”

성산동에 위치한 '키다리아저씨' 빵집에 전화를 걸었을 때 들리는 목소리에 어릴 적 추억이 새록새록 솟아나는 듯 했다.

어렸을 적 기자의 추억 속에 가장 기억나는 만화영화는 바로 '키다리아저씨'다. 고아 소녀 주디 애버튼이 고아원을 떠나 후원자에게 도움을 받으며 여학교를 다니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영화다. 주디는 할렘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만 후원자의 도움으로 결국 자신의 꿈인 작가가 되고, 사랑도 찾고, 행복을 찾게 되는 과정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던 것 같다. 일주일 내내, '키다리아저씨'가 방영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키다리아저씨 빵집의 김생수 대표와 인터뷰 약속을 잡고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것은 키다리아저씨가 정말 키가 큰가 하는 점이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저를 보고, 에이~ 키가 그렇게 크지 않네, 라며 실망을 하곤 해요 (웃음). 하지만 저는 키다리아저씨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빵을 굽는 '마음이 큰 키다리아저씨'가 되려고 합니다.”



마음이 큰 키다리아저씨

키다리아저씨 빵집은 2013년 5월에 문을 연 새내기 작은 빵집이지만 성산동 내에서 훈훈한 나눔활동으로 유명하다. 지역 봉사단체인 마포희망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마을에서 하는 행사가 있으면 빵을 기부하는 등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베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10일 키다리아저씨는 1주년을 맞아 뜻깊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바로 판매 금액 전액을 어려운 마을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자는 것이었다.

김생수 씨와 함께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아내 강승애 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저희도 없는 형편에 많은 빚을 지고 작은 빵집을 연 터라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1주년을 맞아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보통 주변 빵집에서는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면 증정품을 드리는 식의 고객 사은행사를 했지만, 우리 부부는 좀 더 뜻깊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남편이 먼저 ‘판매 금액 전액 기부’ 아이디어를 내더라구요. 저는 바로 흔쾌히 그러자고 했죠.”

행사 당일 그 날은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주었다. 오후쯤 되자 모든 빵은 동이 났다. 판매금액은 140만원이 조금 넘었고, 전액 희망나눔에 기부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아직 한가득 쌓여 있는 빚과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살면서 제대로 된 기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왕이면 동네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을 도와드리자고 결정했어요. 동네에 사시는 분이 ‘마포희망나눔’을 알려주었고, 우리의 기부금이 잘 사용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희 부부는 그때 처음 느껴보는 기분에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기 힘들었어요.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행복하고 뿌듯했습니다.”

기자가 빠듯한 형편에 판매 수익도 아니고 판매금액 전체를 기부할 생각을 했느냐고 하자, 김생수 씨는 이렇게 말했다.

“나눔이란, 단순하게 생각해야 하더라구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주판알을 튕기다 보면 실천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수익을 생각하면 기부가 안 될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아내에게 얘기했을 때 선뜻 ‘하자’라며 동의해준 게 참 고마웠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만들면 빵도 맛있어요”

김생수 씨가 제과제빵업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다.

“고향인 강원도 인제에서 빵을 사먹으러 빵집에 들렀다가 빵집주인이 ‘사람을 구하는데 소개해달라’는 얘기에 선뜻 ‘제가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발을 들여놓은 후 서울로 왔고, 강남 압구정동 유명 베이커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빵 만드는 기술을 익혔죠. 20년 이상 빵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으니, 저와 빵은 천생연분인가 봐요(웃음)”

사실 제과제빵은 많은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매우 힘든 일이다. 매일같이 새벽 일찍 출근해야 하고 공휴일을 비롯해 남들 쉴 때 쉴 수도 없다. 또한 체력



적으로도 강도 높은 노동력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생수 씨는 매일 빵을 굽는 일이 행복하고, 새로운 빵을 개발할 때면 여전히 설렌다고 밝힌다.

또한 키다리아저씨는 최상급 재료를 사용한다. 호밀이나 버터 등도 가장 좋은 것만을 골라 쓴다고.

“이 빵집이 얼마나 좋은 재료를 사용했는지는 손님들이 먼저 알아요. 저희는 첨가제와 방부제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빵을 구워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정성과 노력 때문일까. 키다리아저씨 빵집은 건강한 빵과 착한 가격으로 동네 뿐 아니라 멀리서도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졌다.

김생수 씨는 2년 전 ‘키다리아저씨’라는 이름으로 빵집을 열 때, 내 아이에게 만들어 주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빵을 굽자고 다짐했다. 여윗게 시작한 빵집은 아니라서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빵이 참 맛있다고 많이 찾아와주었다.

김생수 씨는 “식빵 하나를 사면서도 웃으면서 돌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참 고마웠어요.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 빵에는 생명이 있고, 그 빵을 사간 손님들이 맛있게 드실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행복한 마음으로 만들면 빵도 맛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보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 물도 바뀌잖아요? 20년 넘게 빵을 만들어왔지만 저는 여전히 빵을 만드는 순간 매일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생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하면 분명 빵을 파는 사람이나 빵을 드시는 손님 모두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키다리아저씨’를 닮아가는 동네 주민들

‘나눔’의 행복을 느껴본 사람들은 안다. 베푸는 것이 자신에게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나눔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또 한 사람의 나눔이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전이된다.

키다리아저씨 빵집 부부도 첫 기부행사를 한 후 ‘말로 설명하기 힘든 설렘’을 느꼈다고 말한다. 1주년 기부행사 이후 손님들은 더 많이 키다리아저씨 빵집을 찾고 하루하루 더 성장해나가고 있다. 이후 부부는 ‘손님들과 함께 하는 기부’를 생각해냈다.

‘키다리아저씨’라는 이름에 걸맞은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키다리아저씨는 구매금액의 3%를 적립해드리고 있는데, 이 적립금은 마포희망나눔에 기부를 할 수 있다. 많은 고객들이 마포희망나눔 앞으로 적립금을 기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결연 어르신들 생신케이크를 살 때 사용된다.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한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배달해드리고 있다. 맛있고 건강한 빵도 사고, 동네 이웃들을 위한 기부도 할 수 있으니 키다리아저씨 빵집뿐 아니라 이곳에 오는 손님들도 나눔을 실천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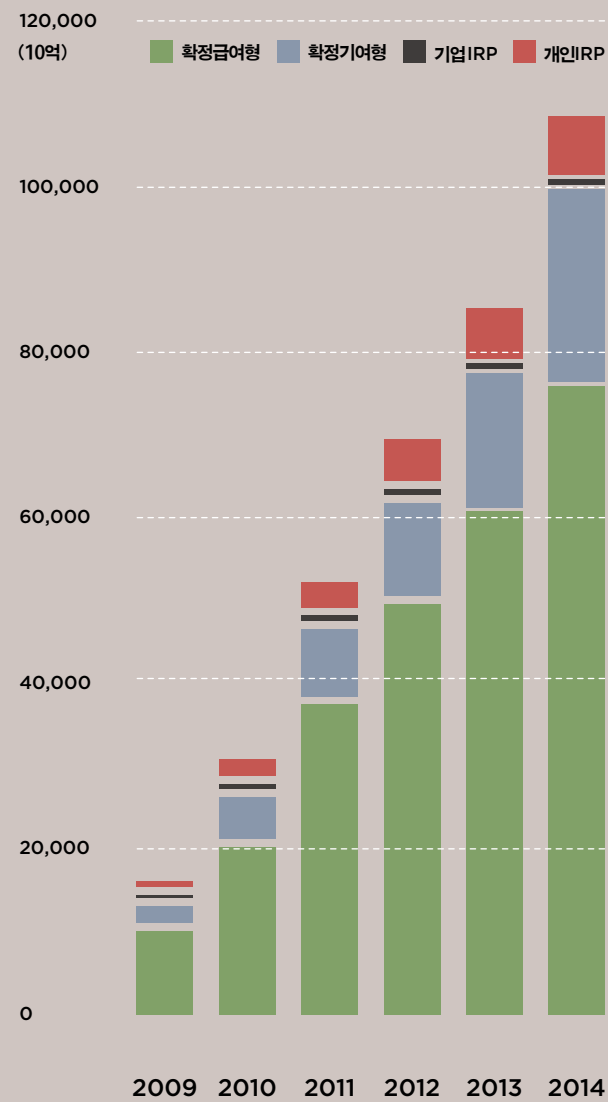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는 말이 있다. 키다리아저씨 김생수 씨도 그렇다. 빵집에 ‘키다리아저씨’라는 간판을 거는 순간부터 그렇게 닮아가기 시작했다. 키다리아저씨의 마음에 동참하는 동네 주민들도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성산동에 가면 키다리아저씨의 빵굽는 냄새가 피어오를 것만 같다.

퇴직연금 100조 시대 진입

향후 낮은 연금 수익률 제고를 통한
연금화 확대가 중요한 선결과제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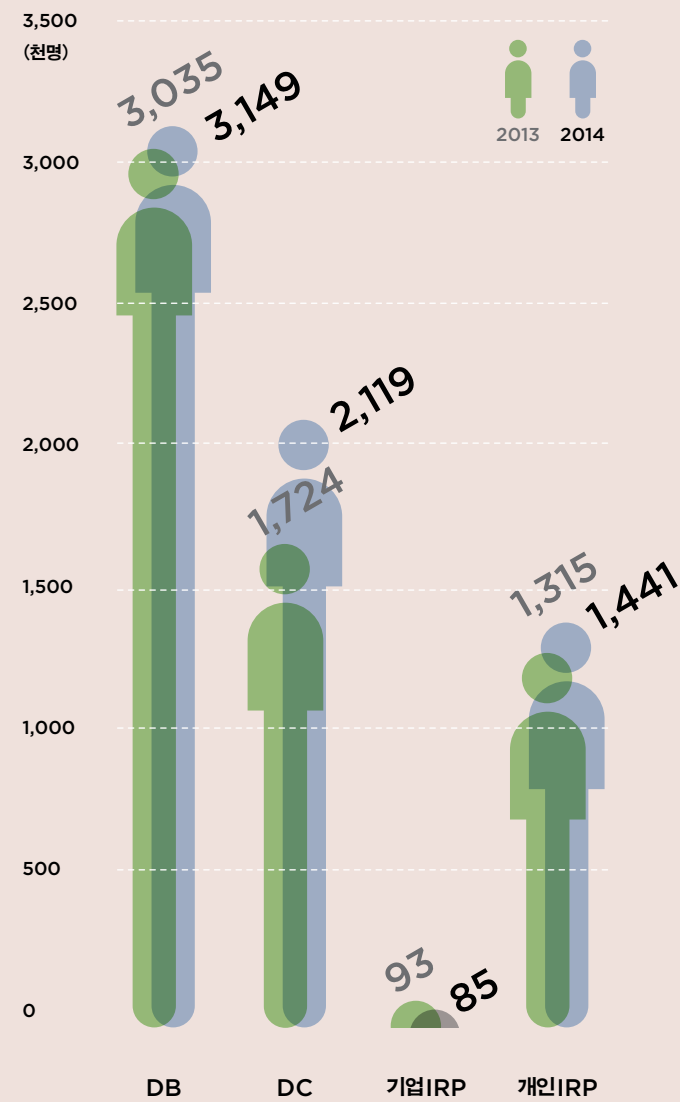
퇴직연금의 유형별 잔액



자료 : 금융감독원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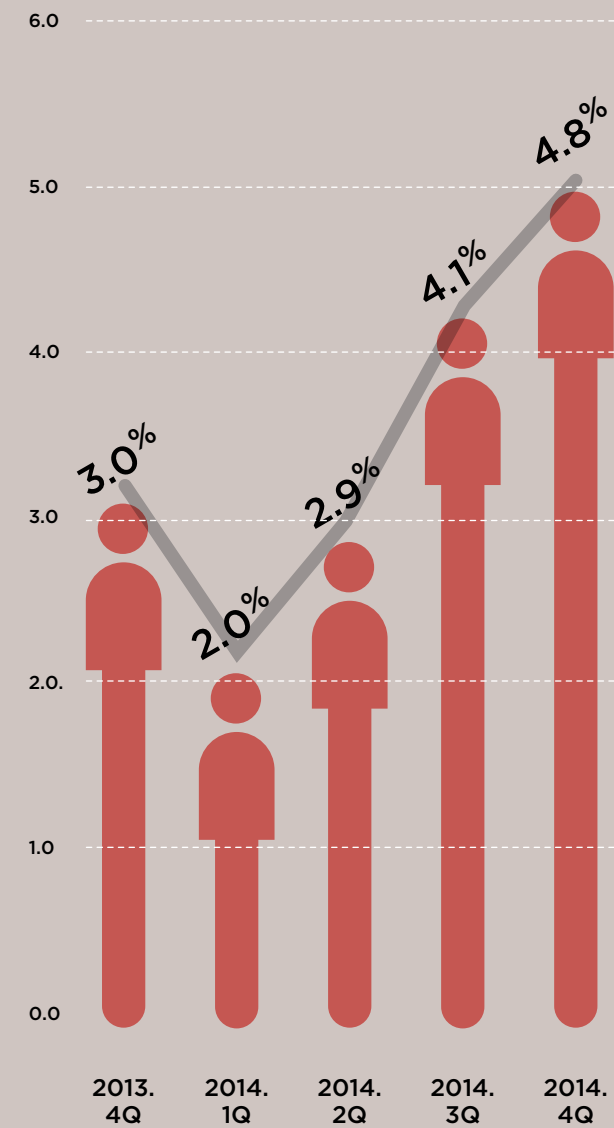
퇴직연금 가입자 수



주 : 개인IRP는 운용관리계약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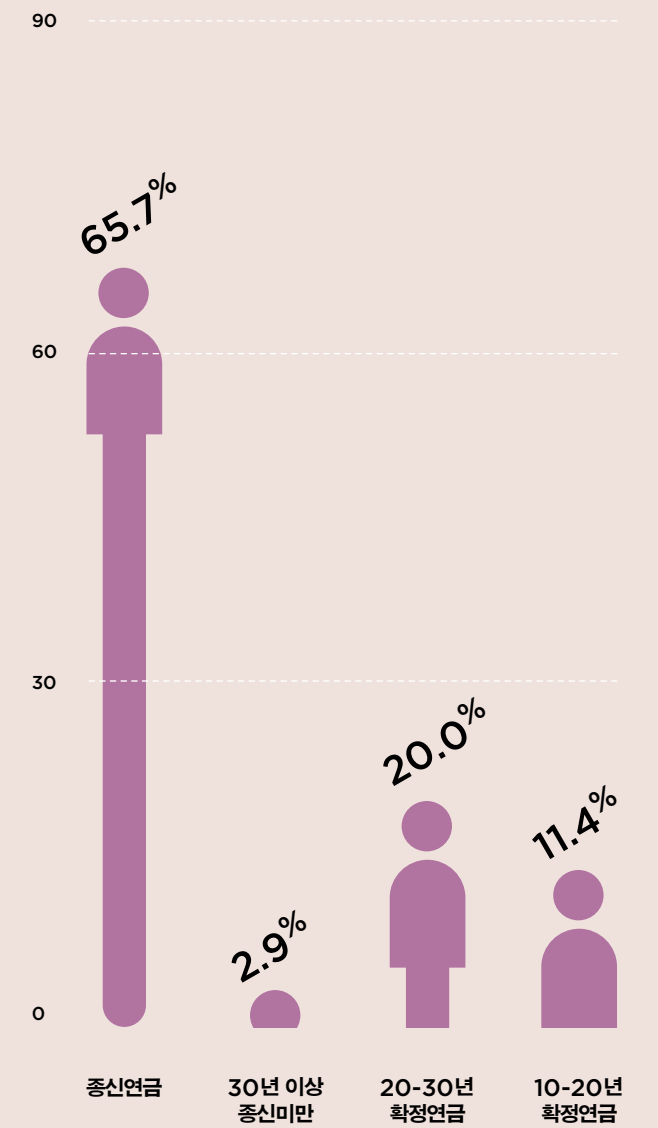
연금수급자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04

연금수급자들의 수급기간별 비중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수익 추구형 금융자산 운용과 은퇴시기 늦춰 행.복.한 노후설계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H씨는 고등학교, 중학교 자녀 2명과 가정주부인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월평균 600만원의 수입이 있지만 지출이 만만치 않아, 향후 3~5년 내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할 때가 되면 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60세에 은퇴해 노후생활비로 월 250만원을 원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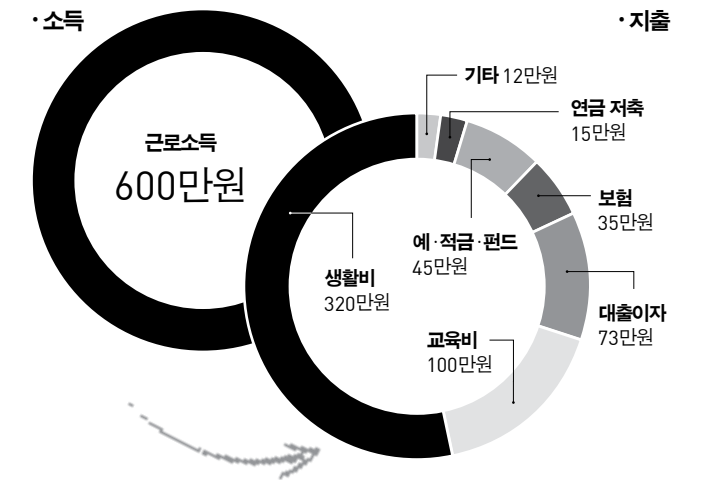
담보대출 상환, 자녀에게 지출되는 비용 등으로 어떻게 미래설계를 할지 고민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H씨(만 45세)는 가정주부인 부인과 슬하에 고등학교 1학년생과 중학교 1학년생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최근 H씨는 주택담보대출 2억 5천만원을 융자 받아 5억 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장만하였으며, 금융자산으로는 예·적금 5천만원, 펀드 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자영업 소득으로 월평균 600만원의 수입이 있는 반면 지출은 생활비 420만원(교육비 100만원 포함), 대출이자 73만원, 보험 35만원, 예·적금·펀드 45만원, 연금저축 15만원, 기타비용 12만원이 있다.

H씨는 향후 3~5년 내 자녀들의 대학등록금(1인당 4천만원 예상)과 이후 결혼비용 2억원(1인당 1억원 예상)까지 생각하면 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2년으로 잡아 현재 원금을 상환하고 있지 않지만, 2년 후 원금까지 상환하기 시작하면 은퇴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든다.

1.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 자산	아파트	5억 5,000만 원
	예·적금	5,000만 원
	펀드 등	2,000만 원
· 부채	주택담보대출	2억 5,000만 원
· 순자산	3억 7,000만 원	



60세에 은퇴하여 노후 생활비로 월 250만원을 원하나 쉽지 않은 상황

H씨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은퇴가 비교적 유동적인 편이다. 은퇴시기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보진 않았으나 60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85세 정도까지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미래설계를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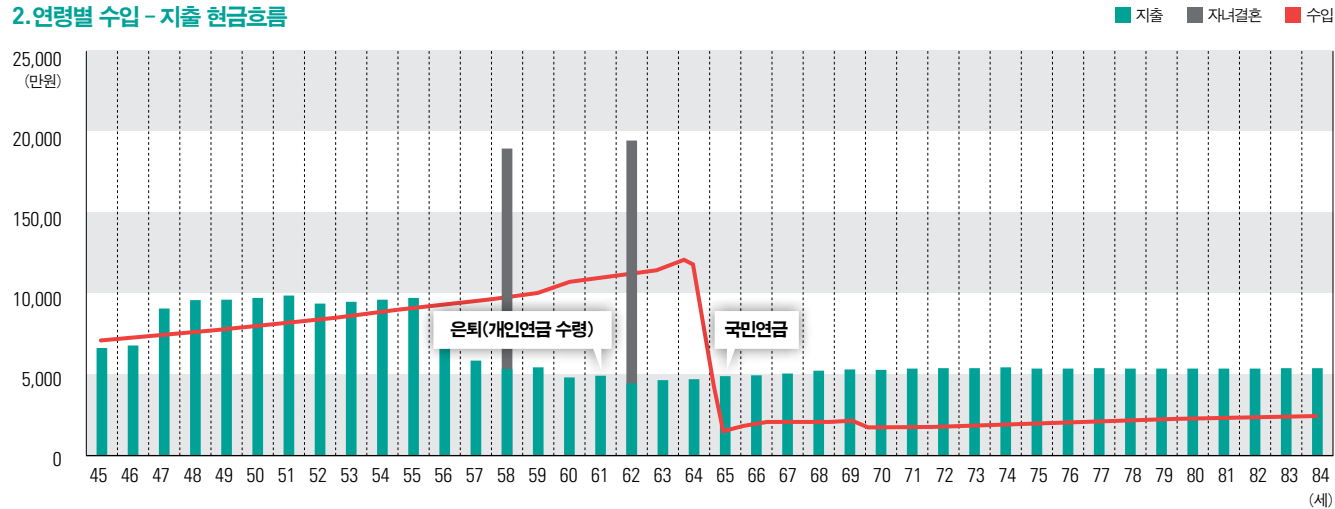
현재 H씨는 생활비로 42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은퇴 시기와 두 자녀의 결혼 예상시기가 유사한 만큼 은퇴 후에는 이보다 적은 25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로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65세 이후부터 월 8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연금은 은퇴시점인 60세부터 69세까지 월 24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H씨의 미래설계 준비 상태를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통해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 중인 46세까지는 여유자금이 발생하나 거치기간이 끝나는 47세부터 55세까지 지속적인 자금부

족이 발생한다. 이후 은퇴 직전인 59세까지 여유자금이 발생하나 58세에 첫째 자녀 결혼으로 인해 목돈의 지출이 발생하며, 은퇴 직후부터는 둘째 자녀의 결혼 비용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자금부족 현상이 생긴다.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종합해 보면 은퇴 직전인 59세까지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연속성이 없어 실질적으로 여유자금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자영업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인 59세까지 부족한 자금은 약 1억 1천만원이며, 은퇴 후 사망까지 필요한 자금이 약 4억 9천만원에 육박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아파트의 가치 3억 5천만원을 제외하고라도 전체적으로 약 2억 5천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2.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



적절한 노후 생활을 위해

65세 이후 은퇴 고려

H씨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45세부터 85세까지 전체 시기에서 고루 발생하고 있는 부족자금과 자녀의 결혼비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은퇴 직전에도 자금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선 현재 320만원인 생활비(교육비 제외)를 일부 줄이거나 은퇴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생활비를 줄일 경우 약 90만원 규모의 축소가 필요한데, 가족이 4명임을 고려할 때 생활비 축소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H씨의 경우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은퇴 시기가 유동적이라 다소 힘에 부치더라도 은퇴 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대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은퇴 시점을 65세까지 늦출 경우 월 90만원에 해당하는 생활비 축소와 유사한 효과를 얻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활용 및 금융자산의

수익추구형 운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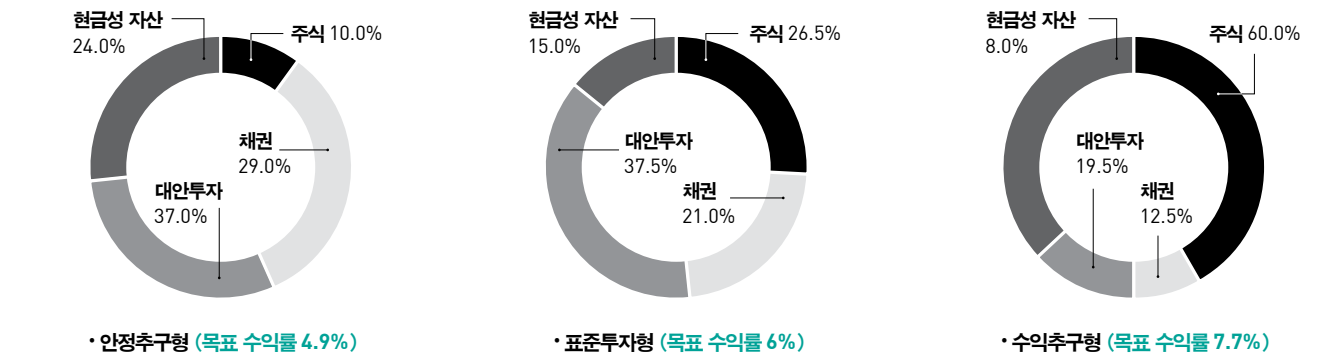
두번째로 은퇴 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5억 5천만원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월 약 15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퇴시기 연장과 주택연금 활용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생활자금 및 자녀의 결혼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운용이 요구된다. 금융자산의 운용을 위해서는 목표수익률 산정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애 순자산흐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자산을 의미하는바 현재 H씨의 순자산은 예·적금 5천만원과 펀드 2천만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가치를 제외한 아파트 가치 3억 5천만원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예·적금

과 펀드의 합인 7천만원과 향후 54세까지 발생할 여유자금 등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H씨가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이 7.10%의 목표수익률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하나대투증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H씨의 목표수익률인 7.10%는 수익추구형에 가까운 수익률이므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해당 포트폴리오에 맞추어 운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수익률이 다소 높은 편으로 생각된다면 자녀 결혼비용을 1억원에서 7천만원 규모로 줄여 목표수익률을 4.02%까지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H씨가 미래설계를 한다면 순자산의 흐름은 은퇴 직전인 64세까지 자녀 결혼 시점마다 다소 감소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 은퇴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주 : 하나대투증권에서는 '머니TALK'를 통해 매분기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추구형', '표준투자형', '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 제시
자료 : 하나대투증권, '머니TALK', 2015.04

현금 흐름에 대한 재조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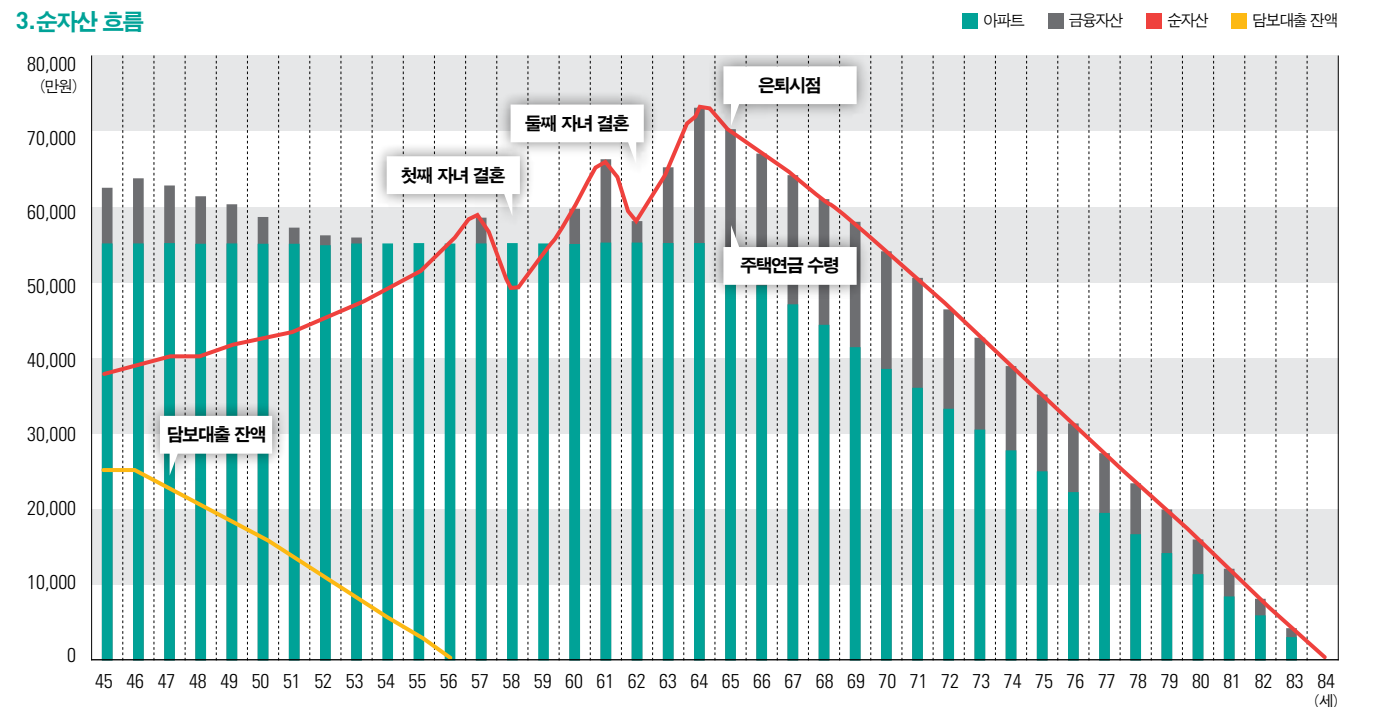
금융자산 운용 모두에 관심을 기울여야

H씨는 현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생활비 등 지출이 큰 편으로 향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자녀 학자금 및 결혼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은퇴를 대비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47세부터 56세까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및 자녀 교육비 등이 추가로 지출되는 상황이므로 은퇴 시기 연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주택연금 활용 및 기

존 금융자산과 신규로 편입되는 금융자산을 다소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금융자산 운용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자영업의 특성상 향후 상황은 가변적일 개연성이 높으므로 1년에 한번 정도 주기적인 은퇴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3.순자산 흐름



퇴직금
수령 방법에
따른 절세
노하우
knowhow

퇴직금과 연금 어떤 것이 나에게 득(得)이 될까?

100세 시대를 맞이해 퇴직 후 노후 설계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퇴직 이후
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명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 퇴직금 수령
방법에 따라라도 세부담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노후를 보다 풍요롭게 해줄 절세 방
법을 알아보자.

기대여명이 길어지면서 퇴직 후 삶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보통의 경우 20대 중반에 사회 첫
발을 내딛어서 60세까지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은퇴 이후 40년을 윤택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퇴직자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 특별히 임대소득이나 제2의 창업으로 인한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은퇴 이후에는 퇴직 시 받은 퇴직소득과 개인적으로 적립한 연금 소득
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퇴직금은 일정금액으로 확정되어 있고, 운용수익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같은 퇴직금을 어떤 방
식으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향후 노후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소득 및 퇴
직소득에 대한 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퇴직금 수령
방법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있어

사례 1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 중인 A씨(59세)는
30년 간 직장생활을 하였고,
내년에 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는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형태로 받을지
고민하고 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을 제외한 사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퇴직연금 불입 한도는 지난해까지 4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00만원이 추가되어 총 700만원까지 불입 시 최대 92만4,000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로 시점에는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 은퇴 시에는 연
금수입이 재원이 되니 '일석이조(一石二鳥)'라 할 수 있다.

회사에서 임원 및 근로자로 종사한 사람은 퇴직 후에 퇴직금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발표 자
료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55세 이상 퇴직자 대부분은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한 것으로 나타
났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은 전체 97.1%(42,637명)이며 연금으로 수령한 사람
은 전체 2.9%(1,277명)에 불과하다.

여러 경제적 이유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제상으로도 본다면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는 경우보다 퇴직금을 일정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가 세금이 적다.

세법개정으로 올해 퇴직 분까지는 퇴직금의 일정한 비율(40%)을 공제해 주지만 **2016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퇴직소득이 적을수록 공제를 많이 해주는 차등공제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
이다. 퇴직소득세 산출방식도 12배수 방식으로 변경되어 고소득 퇴직자의 세부담률이 올라
가게 된다.**

예를 들어 A씨의 퇴직금이 7억원으로 2016년 이후 퇴직하고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다고 가
정할 때 4,600만원의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여 세법개정 전보다 약 1,100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A씨가 퇴직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를 활용하여
5년 간 운용 후 10년 동안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총 발생하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를 합쳐 4,700만원이다(단, 퇴직금 운영
수익은 2%를 가정하고 퇴직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여 5년 동안 2%로 정기예금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이 경
우에는 총 세금이 5,600만원 발생하게 되므로,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900만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위의 예시는 추가적으로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산출된 것이므로 다른 금
용소득이 많아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종합 과세된다면 퇴직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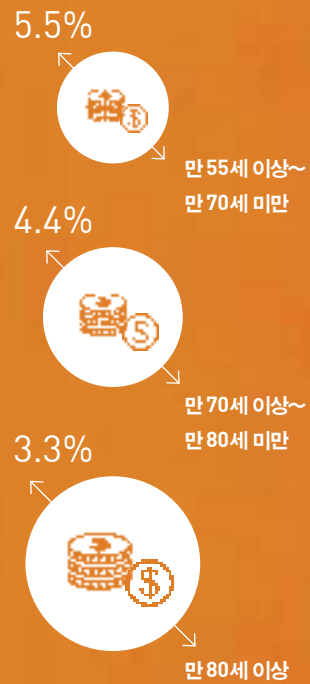
또 퇴직 IRP에 가입한 후 연금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5년 거치 후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
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로 4,600만원이 과세되지만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900만원
세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액과 상관없이 16.5%로 무조건 분리 과세된다는 점도 기억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근로기간동안 근로자 본인이 불입한 적립 IRP의 과세방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례 2

입사 6년차인 B씨는 현재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불입한 적립 IRP 해지 시 어떻게 과세되는지가 궁금하다.

•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 세율



근로를 하면서 불입하였던 적립 IRP를 해지하여 일시에 받는 경우 불입시점에 세액공제받은 원금 부분과 불입한 전체 금액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로 분리과세 가능하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5.5%에서 3.3%로 원천징수가 된다.

부득이한 사유

- ① 천재지변
- ②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③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
- ④ 연금계좌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⑤ 연금취급자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총 운용 수익에 대해서 왼쪽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연금 수령기간에 동안 다른 연금소득(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은 제외)과의 합계액이 1,200만원이 넘는다면 종합과세되어 이듬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위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올해 세법개정으로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노후 소득을 연금형태로 안정적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앞으로 노후 자금을 운용할 때 운용수익 뿐만 아니라 세금 부분도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 세제 관련 주요 내용

	불입 시	인출 시
본인	연간	1. 연금 수령할 경우
불입분	700만원한도 불입가능 연간 924,000원 세액공제	연금소득으로 과세 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5.5~3.3% 원천징수함 단, 연금수령액이 다른 사적연금과 합하여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됨
		2. 일시에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로 무조건 분리과세
회사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DC)	1. 퇴직금을 IRP 적립 후 연금 외로 인출할 경우
불입분	퇴직금 불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됨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세로과세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16.5% 무조건 분리과세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	2. 퇴직금을 IRP 적립 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퇴직급여 추계액의 5% (2015년 기준)와 사외 예치한 운용자산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세로 과세 (연금수령 부분에 대해서는 30% 감면) 운용수익의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과세함

하나대투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올해부터 늘어난 퇴직연금 세제혜택!
하나대투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2015년 연말정산시 약 **92만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세액공제 포인트

- ✓ 납입원금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간 700만원 한도) × 13.2%(지방소득세) 세액공제
- ✓ 퇴직금 및 추가불입한 적립금에 대한 운용·총 과세이연 효과
- ✓ 퇴직연금전용펀드로 낮은 펀드 수수료로 자산 증대 효과

수수료

운용권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 1% 이하 0.20%	- 1% 이하 0.20%
- 1% 초과 0.175%	- 1% 초과 0.175%

가입조건
- 퇴직연금 DB, DC, 기업연금 가입자
- 퇴직연금에 퇴직금을 적립한 자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접투자신행시)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장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됨. ※ 퇴직연금은 예금저축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저축보장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본 자료 기입된 집합투자증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3조에 의한 적립금을 납입하는 퇴직연금 전용상품입니다. ※ 과세 기준 및 방법들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88-3111
www.hanew.com

영리한 금융을 열어갑니다
하나대투증권



보험 가입 시 상속세까지 고려

생명보험 재테크

바야흐로 보험 홍수의 시대다. 텔레비전에는 각 생명보험사들의 광고가 넘쳐난다.

이번 호에서는 생명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

보험 가입 시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잘 고려해서 계약해야 한다.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계약자,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가진 사람’을 수익자라 한다. 피보험자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가 보험에 붙여진 사람’을 의미한다.

생명보험 계약자를
자녀로 하는 경우,
그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음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음

생명보험금을 다른
상속인들과 나눌 필요는
없지만 보험금 역시
유류분의 제한을 받음

생명보험의 계약자는 자녀로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생명보험을 드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되고, 아들이 수익자가 된다. 그러나 만약 위의 예처럼 아버지가 보험계약자가 된다면 상속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자.

세법은 실질을 중시하므로, 보험료를 누가 냈는가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여부가 달라진다. 즉 보험료를 아버지가 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아버지 사망으로 아들이 5억원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라면 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 시 9,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테크의 TIP은 ‘자녀를 계약자’로 하는 것이다. 자녀가 직장이 있고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를 계약자로 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아버지는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보험’으로 하는 피보험자일 뿐이므로 추후 보험금 수령 시 그 재산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생명보험 가입 시에 자녀에게 보험료 부담을 지울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부모의 이름으로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이라도 자녀의 이름으로 계약자 변경을 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추후 보험사고 발생 시 부모가 부담한 보험료와 자녀가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을 따져 부모의 상속재산 포함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냈다면?

부모가 자녀 몰래 생명보험을 들어놓았는데, 이를 모른 채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낸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자녀는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까?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 수익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상속이 아니다. 따라서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자녀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그 보험금으로부터 부모의 채무를 갚을 책임도 없고, 부모의 채권자도 자녀가 받는 보험금을 압류할 수 없다.

생명보험금은 공동상속인들과 나눌 의무 없어

부모가 자녀 중 1인을 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생명보험금도 상속인들과 나누어야 할까? 앞서 언급한 대로 생명보험금은 보험금 수익자의 재산이다. 따라서 생명보험금의 수익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그 보험금을 나눌 의무는 없다. 그러나 생명보험금도 유류분의 제한을 받음을 유의해야 한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1112조).

부모가 돌아가실 경우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할 유류분권이 있으므로, 생명보험금 수령 시 유류분을 감안하여야 한다.

은퇴 후 소득공백기 대비, 연금형 예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월지급식 상품이 금융시장의 주요 상품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이들 은퇴 전후 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은행의 연금형 예금은 그 대표적인 상품 가운데 하나다.

연금형 예금 상품은 만기까지 예금액을 거치한 뒤 약정된 원리금을 한 번에 지급받는 방식인 정기 예금 상품과는 달리 매월 혹은 일정 기간마다 원금에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고객에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이는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만으로는 연금 효과를 내기 힘들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분할 지급함으로써 월 수령액을 높인 것이다.

이러한 연금형 예금 상품은 보험사의 즉시연금보험, 증권사의 월지급식 펀드와 유사하게 매월 일정한 생활자금 흐름을 창출하는 금융상품으로 은퇴 후 국민연금이나 연금저축보험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교형 금융상품이다.

연금형 예금 상품은 일정한 금리를 기반으로 원리금을 분할 지급하는 만큼 원금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는 월지급식 펀드에 비해 안정적이다. 그러나 그만큼 추가 수익률을 달성해 물가상승률 이상의 연금수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시연금보험과 비교해서는 필요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약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보통 가입 기간이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로 종신 지급을 보장하는 즉시연금보험과는 달리 장수 리스크를 완벽하게 헤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로 이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61세~63세까지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즉, 이 기간 중 대다수의 베이비붐 세대가 소득 공백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도 크게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조기연금 수급자는 42만 8,828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14.8%에 달했다. 2009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8만 4,608명(전체의 8.59%)에 비하면 급격한 증가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은 수급개시 연령을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수령금액이 6%씩 감액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 공백기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형 예금의 가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 연금형 예금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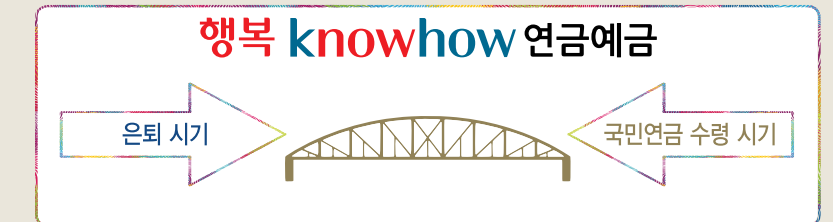
회사	상품명	주요 내용
하나은행·외환은행	행복knowhow연금예금	연금지급액과 만기 해지금액으로 분류 가능
기업은행	IBK연금플러스 통장	가입 다음 달부터 원금 및 이자를 연금식으로 수령 가능
신한은행	신한 미래설계 연금예금	패키지 상품 가입 시 0.2% 우대금리 제공
KB은행	KB골드라이프예금	거치 후 연금수령 방식과 즉시 연금 수령 방식 가운데 선택



밝고 따뜻한 이미지를 지문 모티브로 표현한 행복나무는 고객님의 연륜과 외환은행의 다양한 혜택이 만나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을 형상화 하였습니다. 변함없는 나무처럼, 함께하면 늘 행복한 고객님의 동반자가 되고 싶은 염원을 담았습니다.

퇴직금 등 목돈 예치후 매월 생활비를
든든하게 수령하고 ~

국민연금 수령시기에는 만기해지금액을
높여서 만기 목돈수령의 기쁨까지 누리세요!



- ▶ 상 품 명 : 행복knowhow연금예금
- ▶ 계약기간 : 1년이상 5년이내 (연단위)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 가입금액 : 1백만원이상 제한없음
- ▶ 예금종류 : 정기예금
- ▶ 적용금리 : 기본금리 + 우대금리

(15,04.02 기준, 세전)

기본금리	연 1.8%	우대금리 (최대)	연 0.1%	적용금리 (최대)	연 1.9%
------	--------	-----------	--------	-----------	--------

- 기본금리 : 가입일 또는 매년 가입일 해당일의 고시금리 (매1년단위로 변동 적용됨)

- 우대금리 : 최대 연0.1%

- ① 가입후 6개월이상 경과된 예금주 본인명의 외환은행 예·적금 해지후 1개월이내에 이 예금을 신규하는 경우 연0.1%
- ② 외환은행의 은퇴설계시스템을 통한 은퇴설계 상담후 이 예금을 신규하는 경우 연0.1%

▶ 상품유형 및 원금과 이자 수령방법

- 상품유형 : 거치후 연금식 또는 즉시 연금식 중 택일

- ① 거치후 연금식 : 최소 1년이상 거치후 나머지 계약기간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 균등분할 수령
→ 거치기간중 이자는 매년 가입일 해당일에 지급됨
- ② 즉시 연금식 : 거치기간 없이 전 계약기간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 균등분할 수령

상품 유형	거치기간	원금과 이자 수령기간	원금과 이자 지급시기
거치후 연금식	1년이상 (필수)	1년이상 4년이내 연단위	매월 신규가입 해당일
즉시 연금식	없음	1년이상 5년이내 연단위	매월 신규가입 해당일

- 만기해지금액 지정 : 가입원금의 70%이내에서 만기에 수령 희망하는 금액을 지정 가능

▶ 만기해지금액의 원금은 만기일에, 이자는 매월 수령

- ▶ 수수료 면제 서비스 : 이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본인명의 외환은행 입출금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입금월 다음달에 전자금융 다른은행 이체 수수료, 외환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다른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주) 은행점포내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점외 자동화기기에 한 함

※ 이 예금은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정보의 주요 내용만을 간추린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나 정보에 대하여는 은행의 약관이나 개별 계약서를 참고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거나 은행홈페이지(www.keb.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즐겨라, 이색 동호회



많은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조언한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미래에 행복해질 가능성은 아주 낮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내 마음이 즐겁고 의미와 재미가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를 즐기는 아주 현명한 방법, 이색 동호회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몰입할 '딴 짓'이 필요하다. 당신의 '딴 짓'은 무엇인가. 만약 폭~ 젖어들어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색다른 동호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흔히들 순간을 잡으라는 말을 하지만, 난 순간이 우리를 잡는 것 같아.” 영화 ‘보이후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명대사다. 무엇이 옳고 그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순간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심신의 평화를 위하여! 특히 그 의도적인 활동의 순간이 현실에 득이 되는 ‘생산적인 순간’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

누군가는 확신한다. “무언가에 깊이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순간에 몰입해 즐기자 보면 어느새 희망을 갖게 되고 살아갈 방법을 깨닫게 된다”고.

세상을 뒤흔드는 동호회의 힘

순간을 즐기기 위한 평범한 동호회라고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 것. 때론 세상을 뒤흔드는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반지의 제왕’ 작가로 유명한 존 로널드 로웰 톨킨의 전기에 보면 동호회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흥미롭다. 톨킨이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에 영문과 교수인 스몰일곱의 청년을 만나게 된다. 이 청년이 바로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인 C. S. 루이스다. 처음엔 서로 경계하던 두 사람은 상대방이 켈트 신화의 복잡한 신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정기적으로 만나 토론을 벌이곤 했다.

이후 톨킨과 루이스는 ‘인클링스’라는 문학 동호회에 가입한다. 출간되지 않은 작품들을 읽고 비평하는 이 친목 모임의 구성원들은 대개 화요일 오전에 ‘독수리와 아이’라는 선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서로가 쓴 작품의 초고를 동료들 앞에서 낭독했다. 이때 톨킨이 낭독한 작품이 ‘반지의 제왕’이다. 낭독 뒤엔 논쟁이 이어졌고 칭찬보다는 혹평이 많았다.

무엇보다 모임의 좌장 격인 루이스는 ‘반지의 제왕’이 완성되기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다음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재촉으로 톨킨을 부추겼고, 결국 ‘반지의 제왕’이라는 걸작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흔히들 순간을 잡으라는 말을 하지만, 난 순간이 우리를 잡는 것 같아.” 영화 ‘보이후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명대사다. 무엇이 옳고 그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순간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심신의 평화를 위하여! 특히 그 의도적인 활동의 순간이 현실에 ‘득’이 되는 ‘생산적인 순간’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

만년필, 라면, 레고 등 눈길끄는 이색 동호회



국내 최대 만년필 동호회 다음카페 ‘펜후드’

만년필 동호회 다음카페 ‘펜후드’(<http://cafe.daum.net/montblank>)는 국내 최대 만년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이다. 1만 6,000여 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다. 만년필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만년필 초보자라면 이곳의 정보를 흡수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될 터. ‘펜후드(PenHood)’의 회장이자 국내 유일의 만년필연구소 소장인 박종진씨는 만년필에 대한 사랑이 넘쳐 이번에 책까지 출간했다. 제목은 ‘만년필입니다!’. 이 책은 한국 첫 만년필 입문서여서 의미가 깊다.



국내 최대 라면동호회 ‘라면 천국’

한 해에 평균 64개의 라면을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온라인 카페 ‘라면천국’(<http://cafe.daum.net/ramyunheaven/>)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국내 최대 라면동호회 라면천국은 라면에 대한 각종 정보를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카페에 소개된 회원들의 다양한 라면 요리법에 나도 모르게 군침을 흘리게 만드는 기발한 요리법이 많다. 최근에는 라면레시피 책도 냈다. ‘꼬꼬면’ 발명자 최용민과 ‘라면천국’ 회원들이 힘을 합쳤다. 이 책에는 색다른 라면요리 87가지, 스타들의 특별한 레시피, 라면의 달인이 알려 주는 조리 노하우, 재미있는 라면 상식과 에피소드, 그리고 대박 라면 맛집까지 다양한 라면 이야기가 가득하다.



국내 최대 레고동호회 ‘브릭인사이드’

아이들만의 전유물로만 착각했던 레고. 레고에 전 세대가 몰입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레고전문동호회 브릭인사이드(www.brickinside.com). 이곳에는 레고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가입조건은 성인만 가입가능하다. 미성년자들은 별도의 ‘주니어 브릭인사이드’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브릭인사이드에서는 현재 국내외 발매된 모든 레고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제품리뷰, 레고 창작활동 등 레고를 활용한 다양한 취미활동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별도의 장터를 운영하고 있어 회원들 간의 레고 판매 및 구매도 이뤄져 구매에서부터 활용까지 원스톱으로 레고 매니아가 될 수 있다.



SF&판타지물 동호회 ‘조이에스에프 클럽’

스펙터클한 판타지소설에 매료되어 밤을 꼬박 새운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있을 것이다.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때론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한 신기한 경험으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한다. 그런 SF. 판타지 매니아들이 뭉쳤다. 조이에스에프 클럽(www.joysf.com)은 1998년에 문을 연 SF 판타지 동호회다. 특히 2009년 3월엔 동호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전문도서관’도 개관했다. 또 발표자들이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고 청중이 투표를 통해 좋아하는 책을 뽑는 방식의 경연인 ‘비블리오 배틀’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어 흥미를 끈다.

한방차에서 행복을 우려내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바쁜 일상 중 한 잔, 누군가를 만난

자리에서도 한 잔, 언제 어디서든지 마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차(茶)가

있다. 바로 한방차. 지친 몸을 다독거리고, 바쁜 생활 속 시든 마음을

다스려줄 4가지 한방차를 소개한다.



차(茶)는 느린 삶을 이야기한다. 빨리 빨리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차의 의미가 그렇다. '바쁘다'는 것에서 오는 조급함,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시간까지 빨리 흘러가게 만든다. 이럴때 일수록 느림을 말하는 차에 관심을 가져보자. 특히 한방차는 '건강함'까지 담으로 얻을 수 있다.

차는 음식과 함께 마시면 소화를 도와 건강에 좋고, 혼자 자신을 벗삼아 마시면 한가함을 만끽할 수 있으며, 더불어 마시면 즐거우니 차 마시는 일은 참으로 심신이 건강해지는 습관이다.

따뜻한 한방차 한 잔이면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넣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약의 효능까지 함께 만끽할 수 있다.

최근 차가 건강음료로 인식이 바뀌어 가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력 향상, 노화 방지, 암 예방, 생활 습관병 예방 등 질병에 대한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한방차는 한약재를 이용해 끓이는 차로, 약효가 있는 풀이나 나뭇잎, 뿌리, 열매, 꽃, 씨앗 등을 물에 넣어 달이거나 유효성분을 우려내어 마시는 차를 말한다. 차의 매력이 그윽한 맛과 깊은 향에 있다면 한방차는 질병 치료와 예방 효과까지 더해진 건강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방차는 약재를 물에 넣고 끓여 마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복잡하고 바쁜 일상에 갇혀 오묘한 매력을 지닌 한방차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자.



한방차 4선

우영차

우영은 식이섬유, 비타민C, 철분, 칼슘이 풍부해 오래 전부터 신진대사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왔다. 우영차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활성산소를 없애 노화를 방지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변비를 예방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독소와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 몸속 환경을 청정하게 만든다. 단, 우영은 찬 성질이 있어 몸이 찬 사람에게 는 맞지 않다. 몸이 찬 사람이 우영차를 다량 마시게 되면 복통, 설사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구기자 열매차

구기자에는 비타민과 루틴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필수 아미노산도 8가지나 들어있어 콩팥을 보호하고 간에도 좋다. 또 폐 기능을 좋게 하고,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노화 방지에도 탁월하다. 특히 아이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구기환동환' 처방의 주성분도 '구기자'이다. 예로부터 구기자를 차로 달여 상복하면 눈이 밝아지고 흰 머리가 검어지며, 빠진 이가 다시 나면서 100세 이상 장수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본초비요에서는 폐를 윤택하게 하고 간을 맑게 하며, 대소장을 통리하고, 기를 북돋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본초강목에서는 정기를 보하고 신을 편하게 해 무병장수케 한다고 소개한다.

감잎차

은은한 향과 구수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인 감잎차는 비타민C가 풍부하데, 열에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 특히 레몬의 20배에 달하는 비타민C, 마그네슘, 칼슘 등 무기질이 가득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콜레스테롤 분해를 돕는다. 비타민C는 감기와 당뇨병, 고혈압 등 성인병에 유익한 영양분. 동맥경화증, 고혈압, 노인의 변비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솔잎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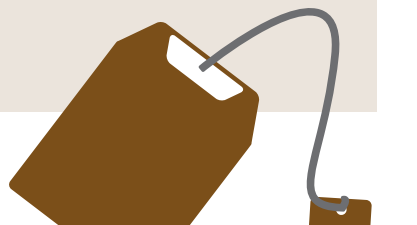
뇌와 근육이 피로하거나 몸의 저항력이 낮아졌을 때 솔잎차를 마셔보자. 아세틸콜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빠른 피로회복에 좋다. 또한 신경을 안정시켜주며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또 타닌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위 운동을 활발하게 해 식욕을 촉진시키고 위장의 점막을 보호한다. 신경성 변비가 있는 경우 장의 긴장을 풀어 변비에도 좋다. 특히 비타민과 옥시팔라민 그리고 베타카로틴 등은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노화방지에 효과적이다.

이밖에도 뛰어난 항암효과, 어혈의 제거, 모세혈관 강화 및 동맥경화 증상 완화, 피로 회복 및 원기 회복, 신경통, 두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

증상별 한방차 고르기



고혈압	감잎차, 다시마차, 송화차, 솔잎차	소화 불량	산약차, 생강차
골다공증	두충차, 표고버섯차	신체 기능 저하	로즈마리차, 오가피차
관절염	두충차, 모과차, 오가피차, 우슬차, 울무차	생리통	당귀차, 부추즙차, 생강차, 쑥차, 익모초차, 홍화차
두통	국화차, 박하차, 매실차, 산수유차	오심견	두충차, 오가피차, 우슬차, 홍화차
만성 피로	구기자차, 대추차, 사과차, 오미자차, 인삼차, 황기차	전립선 비대증	결명자차, 두충차, 옥수수수염차, 질경이차
무릎 통증	구기자차, 계피차, 산수유차, 울무차, 히수오차	여드름	감잎차, 국화차, 길경차, 당귀차, 매실차, 삼백초차
목 통증	레몬차, 길경차, 모과차, 박하차, 생강차, 행인차, 오미자차, 유자차	콧물·축농증	모과차, 대추차, 생강차, 인삼차, 갈근차
불면증	감잎차, 대추차, 다시마차, 대추충백차, 솔잎차, 송화차, 원지감초차, 황기마늘차	협심증	오가피차, 당귀차, 내복자차, 솔잎차



두 바퀴의 행복, 자전거

자전거로 달리면 땅의 질감이나 바람의 온기를 그대로 음미하며 다닐 수 있다.

또 어떤 구속없이 구석구석 감상할 수 있다. 소설가 김훈은 자전거 타는 느낌을 이렇게 말한다.

“자전거를 타고 저어갈 때, 세상의 길들은 몸 속으로 흘러들어온다.”

자전거 탄 풍경 하나
해마다
봄이 되면

봄이 되면...

해마다 봄이 되고 아카시아가 달콤한 향기를 뿜어 낼 때면...

그 향기 속으로 자전거를 타고 파고든다.

하얀색 자전거를 타고 하얀색 아카시아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숲길을 갈 때면,

내리막을 금방 지나치는 게 아쉬워, 브레이크를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슴 가득 달콤한

향기를 담아 간다. 아카시아가 가득 피어 있는 어느 맑은 5월의 숲을 바라보면,

늘 마음은 그 숲길 가운데로 가만히 파고들어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다.

향기를 느끼면서 아주 천.천.히.

자전거 탄 풍경들
내리막을 질주하는
자유로움

한동안 내리막이 이어진다. 함께 산 길에 오른 친구와 잠시 자전거를 세우고, 짜릿한 행복을

전해줄 내리막길을 내려다 본 후, 설레는 마음으로 눈빛을 교환한다.

저 거친 길을 오를 때의 고통과 온갖 상념은 한바탕 내리막에 떠내려간다. 산자락과 계곡줄기를 따라

굽이굽이 길은 끊어지듯 이어지고 숲은 가까이 왔다가, 벗어나고, 해가 내리찍는 듯 싶다가도

나무 그늘 속으로 내달린다. 시원한 바람이 땀을 씻어가고, 엔돌핀과 세르토닌이 뿜어져 나오며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준다.

“야호~!!”

힘껏 소리를 질러본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나를 따라 뒤 따라 오는 친구의 ‘야호’ 소리가 숲 속으로

사라질 때쯤 내리막은 다시 평지로 서서히 바뀌어 간다. 무서운 속도로 밀을 향해 달리던

자전거도 이제 적당히 페달을 밟아줘야 속도가 날 만큼 내려왔다. 등산을 하고 내려와야 막걸리가 제

맛이듯, 땀 흘리며 힘들게 오르막을 오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 바로 내리막이다.

자전거 탄 풍경 셋
딸아이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던 날

“멀리 앞을 봐야지,

페달에서 발을 떼지 말고 계속 밟고!”

끊임없이 주문을 한다. 그러다 결국 저 작은 몸집의 아이는 홀로 페달을 밟는데 성공한다.

어쩐지 낯이 시큰해졌다. 3년 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던 날. 스스로 자전거 페달을 밟는 아이의 모습에 대견하기도 하고,

가슴 뿌듯함이 벅차게 밀려온다.

예전 TV 광고에 자전거를 처음 타는 아이의 모습을 담은 장면이 있었다.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딸애가 자전거를 처음 타던 날이죠.”

한 장의 사진. 그 사진을 바라보는 아빠의 행복한 미소. 사실 아이가 없던 시절엔,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저렇게 오버를 하나’ 싶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다.

아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하는 순간만큼이나 감동적이면서도 대견한, 오묘한 감정이 든다는 것을.

이제 아이는 커서 연인과 함께 한강에서 2인용 자전거를 타며 데이트를 하고,

언젠가는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 자전거 타는 법을 직접 가르치게 될 것이다.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돌고 도는 것이 인생 아닐까.

서울에서 자전거 타기 좋은 길

1. **한강시민공원** | 행주대교에서 광나루지구까지 서울을 횡단하는 한강을 따라 36.9km의 자전거 도로는 구간별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잘 조성된 꽃길을 따라 달리다보면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진다.

2. **올림픽공원** | 43만평이나 되는 올림픽공원은 호반의 길, 토성의 길, 추억의 길, 연인의 길, 그리고 젊음의 길 등의 코스가 있고, 각 코스마다 다른 느낌을 받으며 자전거를 탈 수 있다. 편의시설과 레스토랑, 커피숍 등이 많아 차 한 잔 하며 잠시 쉬어가기에도 그만이다.

3. **서울숲** | 35만평의 서울숲은 한강 북쪽 자전거 길과 연결돼 있고, 나무도 많다. 또 곳곳에 놀이터를 비롯해 보물과 같은 장소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니 아이들과 함께 타기 좋은 코스다.

4. **중랑천** | 중랑천 자전거도로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자전거도로와 자동차 도로 간 거리가 가깝다. 동부간선도로는 출퇴근길 꽉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은 데, 자동차를 추월해서 달리는 자전거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봄이면 벚꽃 길이 특히 예쁘다.

5. **홍제천** | 한강변 도로와 이어지는 홍제천은 자전거 코스가 마치 오솔길 느껴진다. 중간중간 자전거 무인대여소가 있어 자전거 없어도 손쉽게 간편하게 대여해서 탈 수 있다.

6. **탄천길** |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손에 꼽는 길로 인공미와 자연미를 적절히 느낄 수 있는 길이다.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에서 시작해 성남과 분당을 거쳐 용인 수지 구성역까지 이어져 있으며 30km가량 된다.



노후설계를 위한 보험상품 현황과 시사점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산을 감소에 따른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이슈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9명으로 전 세계 평균인 2.52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2050년에 40.2%로 급증해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게 빠른 고령화의 진행에 대비한 적절한 보장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해 노인요양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점점 연장되고 있는 수명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적인 보장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상품 가운데서도 특히 보험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출시되어 있는 보험상품을 크게 건강보장과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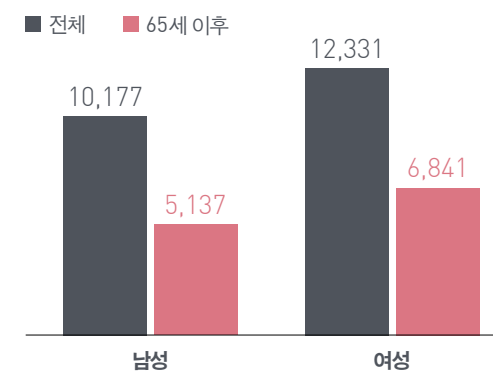
중대 질병과 간병에 따른 의료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과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며 병원을 찾는 횟수도 급증하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지출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 실제로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병원비다. 국민 한 사람이 전 생애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 중 65세 이후에 발생하는 의료비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남자의 경우 평균 생애의료비 가운데 50.5%가 65세 이후에 지출되며 여자의 경우에는 55.5%가 65세 이후에 지출되는 등 노년기에 수술비나 병원치료비, 약값을 쓸 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비지출 가운데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봐도 노인층의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14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는 월 지출의 17.4%를 의료비로 쓰고 있어 전체 가구 의료비 지출 비중(6.4%)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리 건강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다라도 보장기간이 짧은 상품에 가입했다면 지금이라도 고령자를 위한 보험상품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를 위한 건강 관련 보험상품은 노년층에 발생하는 질병 및 상해사고, 간병비 등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크게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상해보험은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인해 신체의 손상을 입었을 경우 상해의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후유 장애, 사망 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다음으로 질병보험은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원, 수술, 통원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 소득보상보험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간병보험은 상해, 질병으로 인한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이들 상품은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취급하는 상품으로 생명보험사 상품은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며 손해보험사 상품은 실손보상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노후 의료비 점유 규모 (단위:만원)



주: 2013년 기준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층 보험가입 현황 (단위:%)

연령대	전체	상해	질병	암	실손
~20대	84.8	53.4	53.9	54.3	65.5
30대	93.8	77.9	77.4	65.2	66.5
40대	94.7	77.8	78.9	67.1	62.3
50대	93.0	73.7	73.6	63.2	54.3
60대	74.8	55.1	48.6	41.2	27.1
~70대	31.9	20.5	9.1	6.8	3.6

자료: 보험개발원

현재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고령자 대상 건강보험은 상해보험이나 간병보험보다는 암보험 등을 중심으로 한 질병보험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질병보험은 지난 2006년부터 ‘실버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출시되기 시작하였으며 60대 이상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고 암이나 뇌출혈, 당뇨, 고혈압 등 노후에 발병률이 높은 병에 걸렸을 때 일정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출시되고 있는 상품은 기존에 당뇨, 고혈압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고령자도 가입 가능하며 보장기간이 100세까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8월부터 출시되기 시작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이 대표적인 고령자보험상품에 해당된다. 기존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가입연령이 75세로 확대된 상품으로 의료실비를 보장해준다.

한편 간병보험의 경우 경험데이터가 부족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의 리스크가 큰 상품으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초기단계 시장이다. 그러나 최근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간병보험의 출시도 증가하는 추세로 생명보험사는 장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시 연금형으로 간병비를 지급하는 형태의 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는 활동불능 상태에 대한 간병비를 보장하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판매 중인 다양한 실버보험

보험사	상품명	특징
삼성생명	실버암보험 2.0	61~75세 가입가능, 최대 100세 보장, 당뇨/고혈압 환자 가입 가능
한화생명	The 따뜻한 고혈압 케어건강보험	30~67세 가입가능, 최대 100세 보장, 고혈압 환자 가입 가능
교보생명	참사랑호보험	30~70세 가입가능, 최대 80세 보장, 뇌출혈 및 심금경색증 치료비 지원
NH농협생명	NH실버암보험	61~75세 가입가능, 최대 100세 보장, 당뇨/고혈압 환자 가입 가능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가족사랑간병보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최대 100세까지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보장
현대해상	계속 받는 암보험	65세까지 가입가능, 최대 100세 보장, 횡수 제한 없이 암 진단자금 지급
LIG손해보험	무배당 매직카운전자보험 III	70세까지 가입가능, 최대 77세까지 보장
더케이손보	무배당 파펙트케어 간병보험	110세까지 보장가능, 치매원지간병비 지급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일정한 노후 소득흐름을 보장하는 연금보험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보장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할 것은 소득보장이다. 은퇴 후 월급을 대신하여 일정한 소득 흐름을 만들어 주는 노후연금상품(retirement income product)은 개개인의 리스크 성향, 원하는 급여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즉시연금보험은 대표적인 노후연금상품으로서 일시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후 즉시 연금 급여를 수령, 생존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즉시연금보험은 앞서 살펴본 일부 실버보험상품과는 달리 가입 대상이 고령자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상품 특성상 고령자의 가입률이 높은 편으로 사실상 고령자 대상 보험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연금 지급 방식에 따라 정액, 변액, 인플레이션 연계 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정액 방식은

일시납 보험료를 보험사에 납입하면, 사망시점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종신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득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변액 방식은 생존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정액연금과 동일하지만 투자 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진다. 보험 가입자는 자산 운용 여건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여 물가상승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반면 연금액이 줄어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연계 방식은 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연계하여 가입자의 실질 소득을 보호하는 상품이다. 일시금으로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인플레이션 연계 방식의 초기 연금액은 정액 방식보다 낮다.

한편, 이러한 즉시연금보험 외에도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고령층 특화상품으로 예상보다 오래 살더라도 보험을 통해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칭)고연령거치연금’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연령거치연금은 일반 거치연금과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연금이 개시되는 나이를 현행 약 50세 전후에서 약 80세 전후로 늦춘 상품이다. 고연령거치연금은 특정기간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거치연금과 상품구조는 똑같지만 연금이 개시되는 나이가 50세 전후에서 80세 전후로 늦춰진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위원회의 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동 상품의 출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령자 특성 반영한 보험 모집 필요

아직까지 국내 보험시장에서 고령자가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많지 않으며 가입할 수 없는 상품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내 고령층의 보험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으로 2012년 기준으로 70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가입률은 32.5%로 전체 연령 가입률(81.6%)대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앞서 언급한 고연령거치연금을 비롯해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을 연계한 보험상품 등의 개발을 촉구하는 등 고령자대상 보험 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좀더 다양한 상품의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층 보험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모집이 필요하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1.4%를 차지했다. 2011년 6.1%, 2012년 8%, 2013년 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 및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연령자 분쟁의 급증은 고령화 진전으로 고연령층의 생명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된 반면 그간 보험가입층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데 기인한다. 일본의 경우 고령층의 이해도 및 판단력을 감안해 쉬운 말로 보험상품을 반복 설명하거나 고객의향을 정확히 파악한 후 확인하는 등의 차별화된 보험모집 지침을 갖고 있다. 고령자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보험모집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보험사와 감독당국의 시장 확대 노력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객들이 본인 스스로 이러한 보험상품의 가입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공적인 보장제도와 달리 민간의료보험이나 연금 상품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건강과 소득에 대한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남은 노후 생활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대차대조표 불황과 한국 경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社の 부도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지도 7년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는 여전히 부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전히 산업생산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경제이론으로는 이와 같이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기존의 이론대로라면 정부지출 확대와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와 같은 확장적 정책을 통해 민간의 유효수요를 자극하면 경기가 회복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극대화하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지만 유효수요의 회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사상 최저수준의 금리와 양적완화(QE)를 통한 금융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실물부문의 유동성 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산버블 붕괴에
대한 트라우마가
‘대차대조표 불황’의
주원인

이에 따라 경제학자들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불황에 주목하게 됐다. 금융위기 초반에는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을 부정하던 경제학자들이 점차 일본의 장기불황과 금융위기 이후의 유사점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의 장기불황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를 독특하게 설명한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각광받게 되었다.

‘대차대조표 불황’은 일본의 경제학자인 ‘리처드 쿠(Rechard C. Koo)’가 그의 저서 ‘디플레와 밸런스시트 불황하의 일본경제(2003)’에서 처음으로 소개했는데, 이는 자산버블 붕괴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으로 대차대조표에 문제가 생긴 경제주체(가계, 기업)가 대출을 통한 소비나 투자보다 부채조정을 통한 자본 확충에 집중함에 따라 경제가 장기간 불황에 빠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어떤 가계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4억 원의 자기자본과 6억 원의 대출을 포함해 매입했는데, 자산버블이 붕괴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으로 추락했다고 가정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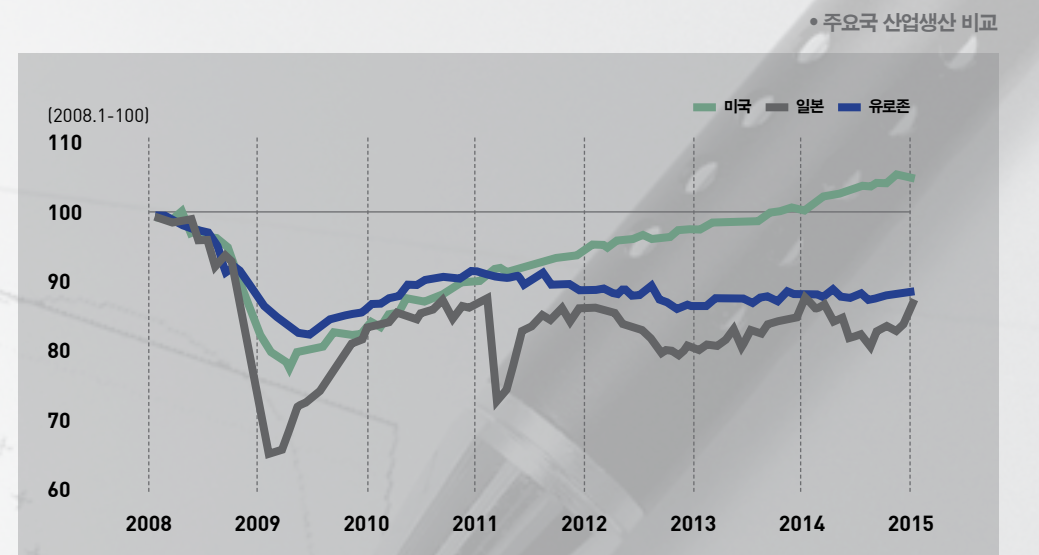
아파트 가격(자산)은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지만, 그의 대출(부채, 6억 원)은 그대로다. 따라서 그의 자기자본(순자산)이 +4억 원에서 -1억 원으로 5억 원이 감소하면서 대차대조표가 엉망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대차대조표가 망가진 가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다행히 가계의 수입(현금흐름)이 유지된다면 지출을 최소화하고 대출을 갚아 나가면서 엉망이 된 대차대조표를 회복하려 노력할 것이다. 가계의 이와 같은 행동은 대출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심지어 가계가 부채조정을 마무리했다라도 자산버

재정확대로 민간부문의
유효수요 공백 메워야

블 붕괴와 이후의 힘들었던 부채조정 과정에 대한 ‘트라우마(trama)’로 인해 버블붕괴 이전에 비해 대출을 동반한 이익극대화 행동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다. ‘지출 최소화-채무 최소화’는 가계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다. 그러나 경제 전체로 보면 이는 경제활동의 위축과 불황의 장기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1990년 버블붕괴 이후 일본의 토지 및 주식가치 하락규모는 1,500조 엔에 달하게 되었으며, 이후 일본기업은 2006년까지 16년 간 금융기관 차입 및 자본시장 조달을 통한 투자 대신 저축증대와 채무 변제에 몰두하게 되었다. 기업의 행동이 이전의 ‘이익 극대화’에서 ‘채무 최소화(생존)’로 바뀐 것이다. 이와 같은 행동은 당시 일본 기업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그 결과는 20년에 걸친 장기불황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경제가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졌을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아무리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대차대조표가 망가진 가계와 기업은 대출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창출이 제한되며 통화승수 효과가 낮아지게 된다. 리처드 쿠는 신용창출이 제한되는 경우를 금융기관이 대출을 자제하는 ‘대부자 문제’와 경제주체가 대출을 꺼리면서 나타나는 ‘대출자 문제’로 구분했다. 전자의 경우 금융위기 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며, 후자의 경우가 ‘대차대조표 불황’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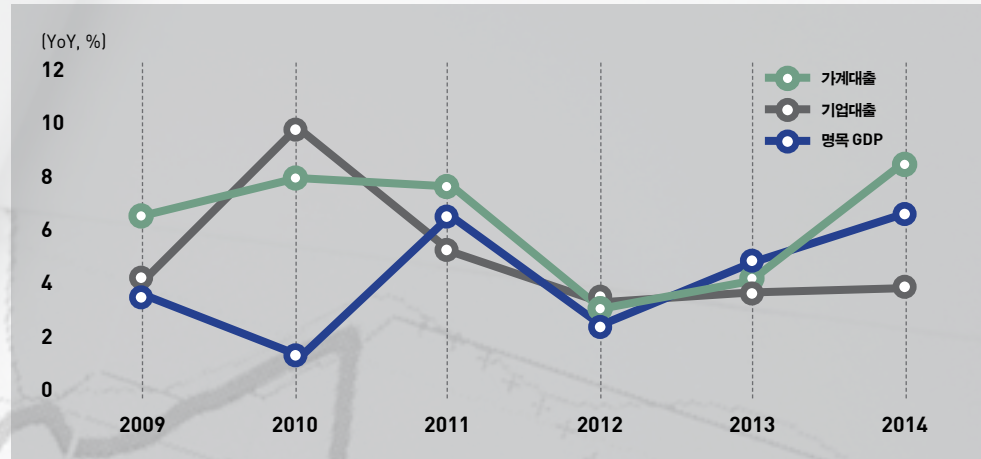
‘리처드 쿠’는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서 민간부문의 유효수요 공백을 메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재정적자가 확대되더라도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재정적자가 적고 불황이 계속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재정확대가 민간부문의 투자증복(구축효과)과 금리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반면, ‘대차대조표 불황’하에서의 재정확대는 민간부문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좋은’ 재정확대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리처드 쿠’는 20년의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가 심각하게 망가지지 않은 것은 일본정부가 과감한 재정지출로 민간부문의 유효수요 공백을 메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처드 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여타국가의 경기 회복속도 차이가 재정지출의 지속여부로 인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신속하고 충분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계속 실시하면서 민간부문의 부채조정(deleveraging)을 뒷받침한 반면, 유로존과 일본 등은 2010년 경제가 잠시 안정된 기미를 보이자 재정적자

를 3년 내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하면서 더블딥(double-dip)에 빠져버렸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계가 대차대조표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양적완화보다는 재정지출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것이 '리처드 쿠'의 주장이다. 특히 자산버블 붕괴의 '트라우마'가 있는 가계와 기업이 부채조정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바로 소비와 투자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채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가계기업대출 증가율 및 명목 GDP 성장을 비교



우리나라도

'대차대조표 불황'?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대차대조표 불황'일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자산의 가격하락을 경험했고, 금융위기 이후 성장을 둔화로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부진하다는 점에서 '대차대조표 불황'을 의심해 볼 만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불황'을 야기할 만큼 망가졌는지는 의심스럽다. 금융위기 직후 KOSPI가 1,000선 아래로 추락하고 일부지역 주택가격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현재 KOSPI 및 주택가격은 대체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다. 실제로 국민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계 및 기업(비금융)은 2012년 말 현재 각각 6101조원, 1295조원의 막대한 순자산(자산-부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통화정책이 무력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지난해 가계 및 기업대출이 각각 59조원, 55조원 증가하는 등 통화정책 완화와 은행대출 증가 간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오히려 가계대출이 경제 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과다한 부채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와 같이 대출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출수요가 주로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에 한정돼 있기 때문인데, 결국 우리나라는 '대차대조표 불황'이 아니며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의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실한 기업과 가계는 외환위기, 신용카드 대란,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트라우마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 대출을 통한 적극적인 이익극대화에 신중하다. 따라서 이들이 대출을 재개하고 소비와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이외에 기대수익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개발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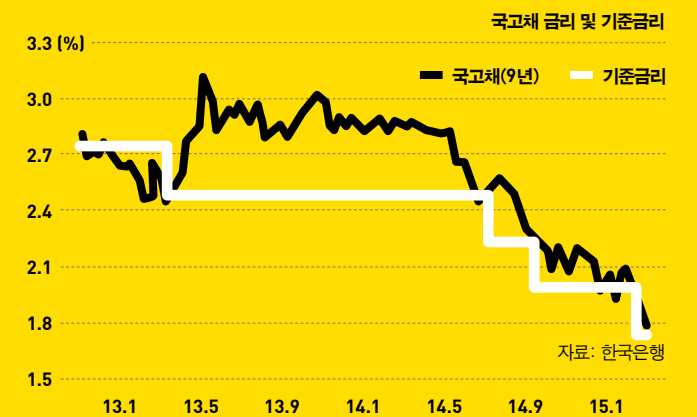
1%대의 기준금리, 약(藥)인가 독(毒)인가



3월 금통위의 전격적인 금리인하로 기준금리 1%대 진입했다. 한국은행이 경기회복세 둔화를

금리인하의 명시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경제여건 개선에 효과가 있을까?

3월 금융통화위원회(3.12일)에서 예상외로 금리인하(2.00%→1.75%)를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하반기 두 번의 금리인하(8월과 10월)에도 불구하고 5개월 만에 금리인하가 다시 결정되면서 기준금리는 1년도 안 돼서 75bp나 하락했다. 사실 3월 금통위 이전부터 글로벌 통화완화 기조 확산, 경제 부총리의 디플레이션 우려 발언 등으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컸다. 다만 시장에서는 3월보다는 4월의 금리인하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한국은행의 조치는 전격적이었던 평가를 받고 있다.



성장세 부진, 정부와의 정책공조,

연준의 행보 등을 의식한 결정

이러한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금리인하는 우선 국내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면서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한 성장경로를 밀돌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4/4분기 GDP 성장률은 단통법 시행으로 정보통신업 및 민간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는 가운데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여력 축소, 수출회복의 경기 견인력 약화 등으로 0.3%(전기 대비)에 그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아울러 유로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들도 통화완화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절상되며 수출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점도 불안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담뱃값 인상(0.6%의 물가 상승효과)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경기회복력, 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률(1월 0.8%→2월 0.5%)이 둔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위험이 증대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의 또 다른 배경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능동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09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가계처분가능소득의 130%에 근접하고 있다. 특

히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난해 3분기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다시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협의회(기재부, 금융위, 국토교통부, 금감원, 한은 등)를 구성해 미시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모색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정책운용 여력이 확보된 측면이 있다.

한편, 연준의 금리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섬에 따라 자칫 금리인하 시기를 놓칠 경우 미국과의 정책 엇박자에 따른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통위 이전부터 미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속에 연준의 6월(혹은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었다. 국내 통화정책과 시중금리가 연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통위 내부에서도 통화정책 타이밍에 대한 논란이 확대됐을 공산이 크다. 실제로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위험을 언급하면서 금리인하가 선제적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더욱이 신용경로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과급효과보다는 부정적인 과급효과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대출수요(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와 맞물린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증가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잉태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역시도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 대출 확대 등)은 질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양적 관리를 위한 대응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를 위해 미시적이고 선별적인 대책(차주별, 자금용도별, 대출기관별 등)이 필요한 가운데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및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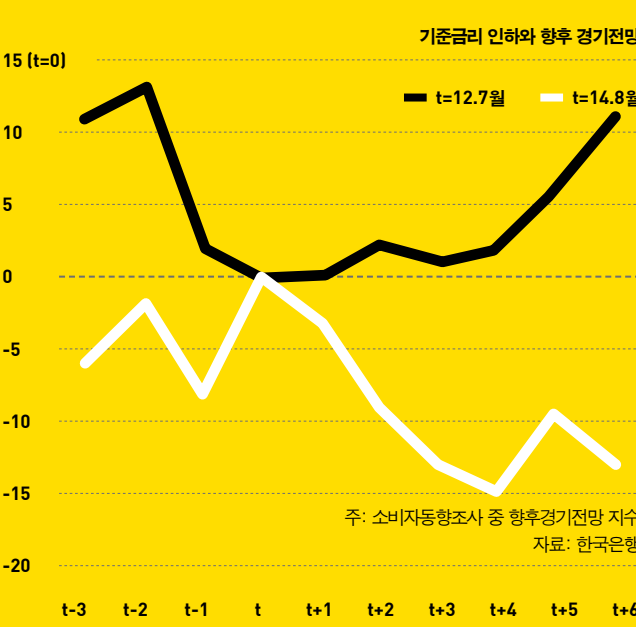
아직은 신중할 필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장단기 금리차(국고채 3년물 금리와 기준금리의 스프레드는 5bp 미만으로 재차 축소)는 하락세를 이어가며 추가 금리인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한은의 금리인하가 빠르게 단행된 가운데 1/4분기에도 경기회복세가 지난 4/4분기에 이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도 생산, 소비, 투자 등 내수 관련 경제지표들이 모두 마이너스 증가율(전월대비)을 나타내고, 수출 감소세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담뱃세 인상 및 연말정산 충격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성장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이하에도 불구하고 경기여건 개선 및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급증 위험에 따른 부담으로 한국은행의 정책 운신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해법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인하와 가계부채 확대 간의 악순환이 심화될 소지도 남아있다. 게다가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 및 속도를 둘러싼 불확실성 역시 한국은행의 향후 통화정책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금리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

악화와 부작용 증대

한국은행이 경기회복세 둔화를 금리인하의 명시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경제여건 개선에 효과가 있을까?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는 금리경로(전반적인 금리 하락), 자산가격경로(주식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 신용경로(은행의 대출태도 완화 및 대출수요 증가), 환율경로(통화 절하 및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 기대경로(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 등을 통해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부양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가계부채 누증, 수익성 있는 투자 기회의 부재 등 경제 내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시장금리 및 자금조달 비용의 하락(이자부담 경감)에도 불구하고 가계는 소비 지출을 꺼리고, 기업은 투자 확대에 망설이고 있다.

아울러 금리인하에 따른 유동성 장세 하에서 주가, 부동산 등 자산가

격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상승 모멘텀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어 그 영향이 소득과 소비 증대로 이어질지 여부도 미지수다. 또한 글로벌 통화완화의 확산 속에 여타 통화들도 절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 가치의 하락만으로는 가격경쟁력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대외 경기회복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해외 수입수요가 취약해 수출 개선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특히, 기준금리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8월 금리인하 이후 경제주체들의 ‘향후경기전망’은 오히려 악화(‘14년 8월 100→’15년 2월 87)되고 있다.

최근 기대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기대경로의 훼손은 금리인하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 제

따라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통화정책에 있어 경기 향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4월 한은의 경제전망 변경 향방이나 1/4분기 GDP 성장률 등의 경제지표 결과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금리인하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위험요인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요망된다. 최근 들어 금리인하와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지원 정책으로 부동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으로의 개인자금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효과로 자산시장의 회복이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경기나 비즈니스 여건 등의 펀더멘털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시적인 회복에 그칠 수 있으며, 자칫하면 자산 버블 우려도 증대될 수 있다.

더욱이 자산 가격 향방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자산시장의 구조변화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부동산시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 한계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유동성 확대나 다양한 정책 지원 등 인위적인 부양책에 편승한 자산시장의 열기에 대해 다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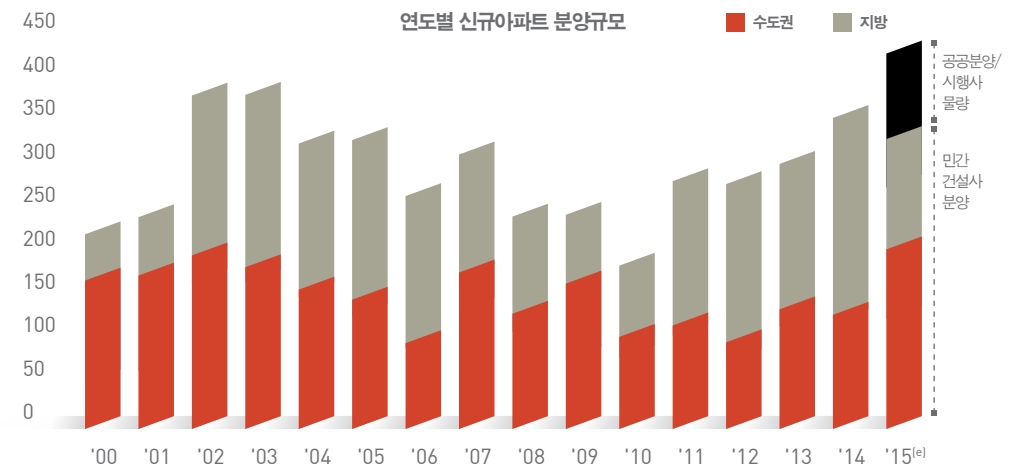
부동산 훈풍을 타고, 쏟아지는 분양물량

지난해에 이어 분양시장 열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신규 아파트 분양규모는 40만호에 달해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분양주택의 입주시점이 일시에 도래하면서 앞으로 2~3년 이후 주택시장에 가해질 공급충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물량 큰 폭으로 증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분양시장 열기가 심상찮다. 2014년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33만호에 달해 2003년(35만호)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평균 청약경쟁률은 7.5대 1로 예년(최근 5년간 평균 3.1대 1)을 크게 웃돌았다. 전국에 걸친 주택시장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수도권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올해 분양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서 국내 300여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2015년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미 31만호의 아파트분양이 예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LH공사의 공공분양 및 시행사 계획물량을 감안하면 연내 신규분양은 대략 40만호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민간건설사의 분양물량 31만호 가운데 19만호가 수도권(서울 6만호, 경기·인천 13만호)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분양규모는 2014년 9만2000호에 비해 2배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과거 수년 간 신규분양이 대구, 부산 등 지방광역시 위주로 진행된 것과 달리 올해 분양물량 증가세가 주로 수도권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주택시장 회복 분위기에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 규제완화 영향 더해진 탓

이렇듯 분양물량이 급증한 것은 최근 주택시장 회복세와 더불어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규제 완화 등 관련정책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수도권 주택시장은 연간 1.3%의 가격상승률을 기록함으로써 2010년 이후 계속된 하락세를 마감했고, 지방 주택시장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탄탄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주택시장이 점차 실수요 주도의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이 보다 선호하는 신규주택 시장의 활황세가 기존주택 시장에 비해 더욱 확연하게 감지됐다. 주택시장의 회복기미로 향후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를 견여낸 실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서면서 분양시장 활기를 주도해 온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7.24, 9.1대책을 통해 청약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건설사를 비롯한 시장참여자들 사이에 분양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 2월 2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수도권 내 청약 1순위 자격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고, 그 결과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기존 243만명에서 991만명(2015년 2월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더불어 잇따른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수도권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됐고, 서울 시내 도심, 강북권을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이 가세하면서 분양물량 증가를 견인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되면서 미뤄왔던 분양물량 쏟아질 듯

지난 연말 통과된 부동산 3법의 하나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오는 4월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사업장은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그동안 분양시기를 미뤄왔던 건설사들이 앞다퉈 물량을 쏟아내면서 4월 신규아파트 분양규모는 56,808호에 달해, 역대 최대치(기존 2007년 12월 54,843호)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체 물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만 7천호 정도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몰려 있어,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분양경쟁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수도권에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향후 입주시점의 공급과잉 우려 목소리도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월 기준금리 인하효과가 더해져 실수요 주도의 분양시장 호조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분양물량 공세는 필연적으로 2~3년 이후 일시에 입주가 도래하는 상황으로 귀결된다. 경제성장률 및 인구증가율의 둔화, 주택보급률의 100% 초과달성으로 인해 주택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주택 공급 역시 장기에 걸쳐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추세에서 벗어나 입주가능한 주택물량이 일시에 쏟아지게 되면, 이른바 '공급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 최초 분양시점에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물건이라 하더라도 실제 준공, 즉 입주시점에 이르러 주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주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준공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인근 주택가격의 연쇄적인 급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 들어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가격변동 추이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이러한 차별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주택시장 특징을 감안하면, 분양물량 급증에 따른 향후 공급과잉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만하다.

오랜만에 찾아온 분양시장의 봄바람, 마냥 달가워하기엔 석연치 않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분양성과에 현혹되기보다 앞으로 수년 이후 입주충격까지 감안한, 그야말로 긴 안목의 투자가 필요한 때다.

어느 것을 먼저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갑자기
필요한 돈

행복한 금융, 하나생명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최소 노후
생활비

평균수명(81세)까지 생존시 암 발생률 3명중 1명
(통계청)

뇌혈관질환 진료환자 50대 이후 82.3%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부부 월 137만원

개인 월 83만원

(국민연금연구원 제4차보고서 2014년)

돌려 받고, 보장 받고, 가족 선물 Plan이 가능한

무배당 **행복 knowhow**
[행복 미래 설계]

Top3
건강보험(보장성)

- 이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보험(연금)이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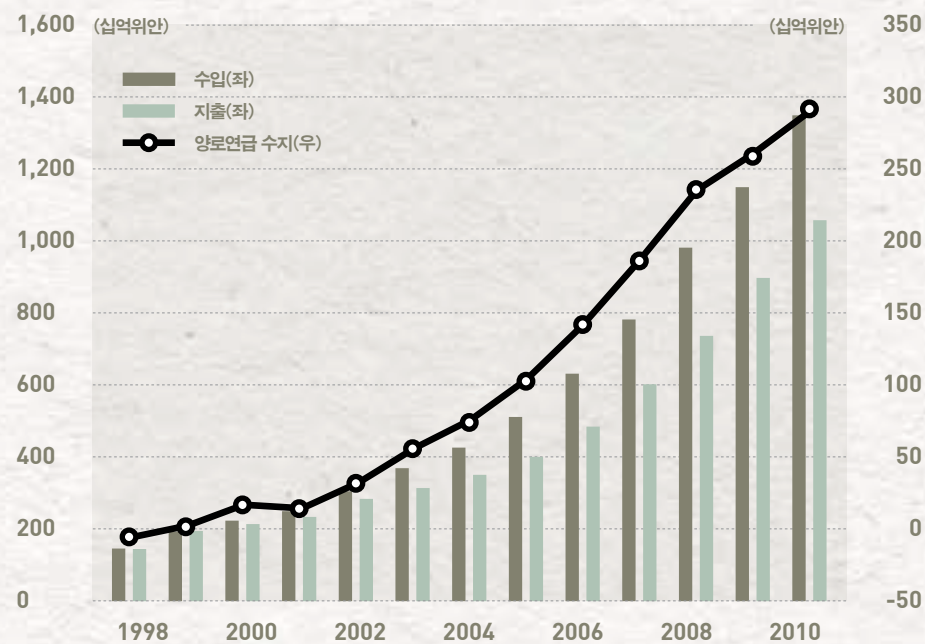
CC브랜드-150127-42 / 준비감시인 심의필 하행 2015-057호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인 중국

최근 한 두 달, 중국 웨이보어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2015년 2월에 있었던 정년퇴임 연장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발언이다. 현재 중국의 정년퇴임은 남자는 60세, 여자는 직장인(white color)인 경우 55세, 공장에서 일하는(blue color) 경우 50세다. 그리고 정년퇴임 이후 바로 노후연금이 개시된다. 이 정년퇴임 정책을 몇 개월씩 매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정년연장과 관련한 논의가 뜨겁다. 청년 실업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대학생들은 인턴을 몇 개씩 해도 취업하기가 힘들다고 아우성 치는 것이 현실인데, 사회보장연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연금 지출이 전년대비 28% 증가한 것(2011 기준)을 보면 머지않아 적신호가 켜질 상황임을 알기에 일할 수 있는 나이(working age)의 폭을 늘리는 것이 연금 적자를 막는 최선의 해결책으로 보인다. 얼마나 더 일해야 하느냐는 비판의 시각도 있지만, 2050년 중국의 노년층이 39%(현재 15%)를 차지한다는 통계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임에 틀림없다.

중국 노후연금보험 기금 수입/지출 현황



“정부의 입장이 이해는 가요.

인구는 늘지만, 노동인구

(젊은층)은 줄어들고 있고, 연금은

부족해질 테니까요. 경쟁력이

없는 대학교들도 하나씩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지요, 더 일하는 것이

유쾌하지 않을지라도 결국엔 퇴직

시기를 늘리는 데 동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공무원(29세)

“개인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바빠 일하고, 빨리

퇴직해서 노후를 즐기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퇴직시기를

늦추는 것은 청년 실업을 가중시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라

상황이 나쁘진 않지만, 연금이

적은 지방도시나 노후연금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 시골같은 경우는

길게 일하면서 소득을 늘리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은행원(35세)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가 돼가고 있는 중국

중국 노인들은 공원, 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공터가 마련된 광장 어디든 많은 할아버지가 장기를 두고 있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기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밤이 되면 광장춤(广场舞)이라 해서 주로 중년 여성이 나와서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모습은 중국 노인들의 일상을 잘 보여주지만, 동시에 자영업자이거나 생계가 어려운 이민노동자의 모습은 그려놓고 있지 않다. 2015년 3월 중국 정부는 올해 4월을 기준으로 노후연금을 올린다는 발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다. 베이징의 경우 노후연금은 월 평균 3,355위안(약 6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305(약 5만 4,000원) 위안이 증가했다. 60만원(베이징 기준)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60만원은 베이징 기준이며 도시마다 노후 연금에 차이가 나고, 시골, 지방의 소도시 같은 경우는 노후연금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노후 연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와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정부가 주는 노후연금으로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후연금으로 살아가기?

‘노후연금으로 살아가기’. 현재는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인구구조가 바뀌고 노동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때가 되면 팍팍한 노후, 불편한 노후를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 현재 남자의 경우 정년은 60세이고, 여자는 공무원이나 회사원인 경우 55세, 공장노동자인 경우는 50세가 정년이다. 그리고 노후연금은 퇴직하는 이 연령부터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금은 현 청·장년층이 낸 노후보험료가 노후연금을 뒷받침해 주고 있지만, 그들이 60세 이상의 노인이 됐을 때 그들의 연금이 어느 정도가 될 지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후난 쪽으로 가거나 서부 쪽, 상업도시, 발달이 덜 된 경우에는 최저임금이나 연금 모두 매우 적은 상황이다.

줄어드는 청년층, 빠른 속도로 고령화돼 가는 사회 속에서 정년연장과 노후연금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빈곤한 노년을 맞지 않기 위해 중국인들도 젊을 때부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도 우리와 흡사한 것 같아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노년준비를 아직 크게 하고
있진 않아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금이 많진 않아도 나을테고,
아마 건강문제에 대비해서 돈을
모아두는 것은 중요하겠죠”.

공무원(29세)

“노년층의 대책이란 것이

따로 있을까요? 손자손녀를

키우면서 노년을 보내는 게

일반사람들의 노년이에요. 요즘

트렌드가 외국에 나가서 여행도

하면서 조금은 즐긴다고 하지만

그러기엔 여유가 많지 않아, 주로

집에서 손자손녀들을 보면서

지내지요”.

은행원(35세)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모금융기관이며, 하나 SK카드사는 부모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형의 신탁상품 제14-06798호 2014.10.13~2015.09.28)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대한민국 행복금융
하나금융그룹



행복한 금융을 열어갑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12층 | TEL. 02-2002-2220 | FAX. 02-2002-2610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카드